

기본연구 2007-15

충남중소제조업의 입지실태와 특성 분석

백운성 · 강영주

발 간 사

충남은 최근 10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고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을 보이며 지역경제의 총량규모에서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이 발달된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의 성장과 기타지역의 상대적 저성장으로 지역경제력 격차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충남의 지역불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발전을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시장의 실패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에 밀려 입지되는 기업에 대해 지역차원의 아무런 정책방향 없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불균형 및 난개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불균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의 산업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수립에 있어 보다 나은 기획을 위하여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수립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강영주 책임연구원과 백운성 연구원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차 례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주요 연구범위와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5
1. 이론적 배경	5
2. 중소기업 입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9
제3장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12
1. 중소기업 개념과 역할	12
1) 중소기업의 개념	12
2)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14
2. 산업구조변화와 충남 제조업 현황	16
1) 충남 경제와 산업구조변화	16
2) 충남의 제조업 현황과 변화추이	20
(1) 충남 제조업의 현황	20
(2) 제조업 업종별 현황 및 변화	21
3.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31
1) 충남 중소기업의 변화	31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비중	31
(2) 충남의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32
2)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35
(1) 중소 제조업의 특화 및 특화도 분석	35
(2)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분석	38

제4장 충남 중소기업의 입지 실태 분석	40
1. 충남 중소기업의 공간적 분포 및 변화	40
1) 공간적 분포 및 변화	40
(1)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변화	40
(2) 중소기업의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변화	43
2) 계획입지 분포 및 공장용지의 공간적 분포	47
2. 산업입지적특성에 따른 기업입지 분석	52
1)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특성	53
2) 지역의 산업특성 변화	57
3. 충남 중소기업체의 지역 입지요인	61
1) 충남 중소기업의 입지환경요인	61
2) 지역별 입지요인 분석	64
 제5장 요약 및 결론	 67
1. 종합적 분석결과	67
2. 정책적 시사점	69

표 차 례

<표2-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입지결정요인과 입지이론	6
<표2-2> 기업의 입지 선택요인	8
<표2-3> 공간규모에 따른 입지결정 영향 요인	9
<표2-4>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지요인	11
<표3-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13
<표3-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4
<표3-3> 광역시도 GRDP(2000년 불변가격) 현황	18
<표3-4> 산업별 총부가가치액 현황	20
<표3-5> 충남의 제조업 현황	21
<표3-6>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2005년)	23
<표3-7> 업종별 성장률 비교(1995~2005)	30
<표3-8>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31
<표3-9> 충남 중소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34
<표3-10> 중소제조업의 특화 업종변화	37
<표3-11> 충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 변화	39
<표4-1> 중소제조업의 공간적 분포 현황	47
<표4-2> 도내 각 권역별 공장용지 현황	48
<표4-3>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체수	50
<표4-4> 산업단지 조성계획(2006~2020)	51
<표4-5>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 내역	52
<표4-6>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지역별 점유율	56
<표4-7> 산업특성별 비중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60
<표4-9> 산업별 응답구성비(2005년)	62
<표4-10> 기업입지환경요인	63

그림차례

[그림1-1] 연구수행 방법	4
[그림3-1] 산업구조변화	19
[그림3-2] 충남 제조업의 연평균성장률(1995-2005)	24
[그림3-3] 제조업 업종별 전국대비 점유율 (GRDP 포함)	25
[그림3-4] 업종별 사업체수 성장률 비교(1995-2005)	27
[그림3-5] 업종별 종사자수 성장률 비교(1995-2005)	27
[그림3-6] 업종별 생산액 성장률 비교(1995-2005)	28
[그림3-7] 업종별 부가가치 성장률 비교(1995-2005)	28
[그림3-8] 충남 중소기업의 전국 점유율 분포	33
[그림4-1]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	41
[그림4-2]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연평균성장률(1995-2005)	42
[그림4-3] 지역별 사업체수 분포 변화	42
[그림4-4] 지역별 종사자수 분포 변화	43
[그림4-5] 인구대비 종사자 비율	44
[그림4-6] 충남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45
[그림4-7]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46
[그림4-8] 공장용지 변화 (1995-2005)	49
[그림4-9] 업종별 비중 변화추이(1995-2005)	53
[그림4-10]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지역별 점유율	55
[그림4-11]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성장률 변화(1995-2005)	57
[그림4-12] 중소기업의 지역별/산업특성별/성장률 변화(1995-2005)	68
[그림4-13] 기업입지환경요인	62
[그림4-14] 지역별 입지환경요인	65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한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국가와 지역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육성도 산업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창출의 주요원천 역할을 하며, 위험 부담이 높은 새로운 제품과 전문화된 부품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 내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활발한 산업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과거 수십 년 간 기간산업의 육성에 너무 치우친 결과,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정책은 다소 미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입지정책에서만 보더라도 중규모이상의 기업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의 대부분을 점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충분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기업 및 대도시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이 발달된 지역과 저 발달된 지역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충청남도는 현재 북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과 기간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은 최근 10년간 총량규모에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적으로 산업이 집적된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권의 성장과 기타지역의 상대적 저성장으로 인한 지역 경제력 격차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충남의 지역불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발전을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시장의 실패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에 밀려 입지되는 기업은 지역차원의 아무런 정책방향 없이 이루어져 지역의

불균형 및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불균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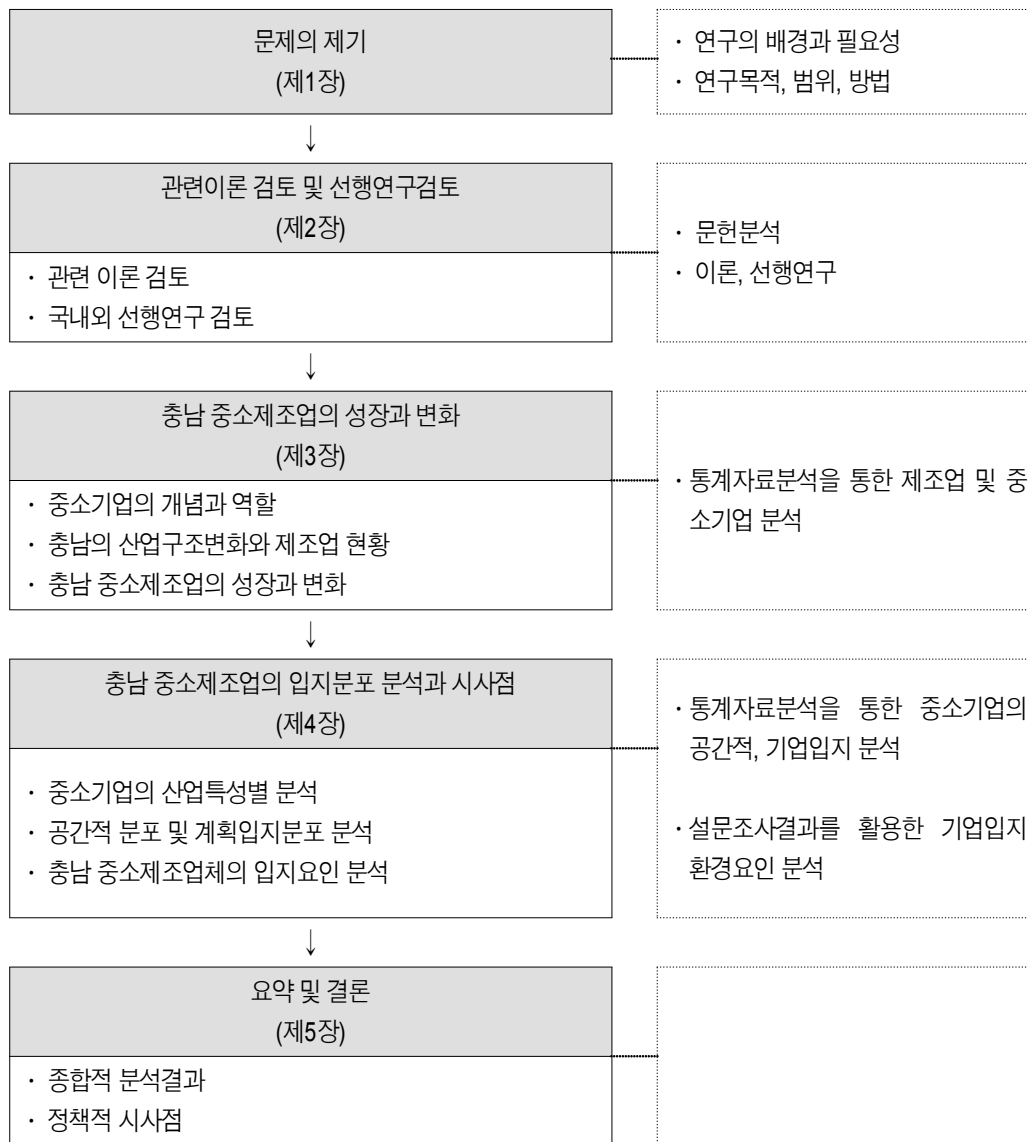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분포, 성장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충남 도내의 중소기업 입지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입지에 대한 물리적·행태적 특성을 공간적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여 지역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지역의 산업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를 기초로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역의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목적이 있다.

3. 주요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입지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산업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제조업을 지역·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지역별, 규모별 특화업종과 경쟁력비교우위 업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주요 분석이 통계자료에 기초한 분석인 관계로 통계자료의 접근성과 가용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 지역, 기업규모 등을 동시에 고려한 통계자료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의 세 종류의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의 충남의 입지환경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설문서를 작성·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입지요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제조업이 충남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고,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 및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을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원시자료를 활용한 통계자료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제조업이 충남에 어떠한 입지특성을 가지고 분포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상기에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종합적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림1-1] 연구수행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 진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는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중소기업 정책을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전개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¹⁾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것이 경제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개선은 곧 기업 입지요인들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의미한다.

1. 이론적 배경

제조업 등을 포함하는 기업입지이론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시대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산업화시대는 토지,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된 산업혁명이후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시기에 해당되고, 정보화시대는 앨빈토플러 등 미래학자가 주장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식기반경제시대는 지식과 인적자본이 생산과 경제의 중심이 된 1990년대 이후를 일컫는 것이 보편적이다.

1) 산업연구원, 한국의 산업 : 발전역사와 미래 비전, 1997, pp.217~220.

〈표2-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입지결정요인과 입지이론

구분	자원기반경제		정보화경제	지식기반경제
	17세기~19세기초	19세기~20세기후반	과도기	20세기 후반이후
핵심생산요소	토지 자본(농업)	산업자본(공업)	기술변화	
입지결정요인	경제적 요인		→	사회문화적요인
	지대	최소비용, 최대수요 총효용의 극대화		사회적자본 제도적 자본 등
입지이론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중심지이론 행태론	공간적 분산론 공간적 집중론 - 제품수명주기론 - 공간적 집적론 - 신산업지구론 - 혁신환경론 - 클러스터론	이론 미정착 - 클러스터 이론 - 지역혁신체계론 - 학습경제론 등

이러한 입지이론에서 제기되는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이나 산업 활동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로 구분²⁾할 수 있다. 물리적 조건으로는 도로, 항만, 공항, 주택단지, 공업단지 등 인공적인 시설들이 중시되고 있으며, 생산요소 조건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등 고전적 요인 이외에 시장(수요), 정부정책, 삶의 질 등 보다 광범위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고전적 산업입지 이론에서는 물리적 조건과 생산요소 조건을 감안하여 비용과 이윤 등 비교적 단순한 관점에서 산업의 입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최소화와 이윤극대화를 위한 산업의 입지선택이 논의의 핵심이었지만, 이러한 관

2) 소진광, “산업입지이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지역경제론』, 서울:보성각, 1999.

점은 비경제적 동기로 인한 경제활동과 미시적인 기업입지 활동의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활동의 결과를 기업가의 행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각(정보의 불완전성, 기업가 개인의 선호, 기업의 경영전략 등)되고 있다.

산업의 주력이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 신산업 분야로 이동하면서 산업입지요인도 변화하고 있다. IT, 바이오, 문화컨텐츠 산업 등 신산업 분야는 과거 전통 제조업에 비하여 지식과 정보,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도 이러한 혁신의 발생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의 경우 가치연쇄(value-chain)상의 각 단계별 기능간 긴밀한 연계가 강조되면서 공간적 인접성이 중시되고 있다. 클러스터를 중시하는 접근법은 특정지역의 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와 결합되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은 첫째, 전문기술인력의 풍부한 풀(pool) 형성, 둘째, 연구개발시설에의 접근성, 셋째,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태동과 육성에는 보다 주의 깊은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상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실제로 기업의 입지 결정시 인프라, 생산요소, 기업환경,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Hayter(1998)는 교통, 원재료, 시장, 노동조건, 외부경제,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자본, 토지·건물, 환경, 정부정책을 포함하여 11가지 요소를 일반적인 기업입지 선택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2-2〉 기업의 입지 선택 요인

입지요인	구체적 양상	추상적 양상
교통	화물 수송료	신뢰도, 빈도, 손상정도, 활용도
원재료	생산비용, 교통비용	안전성, 질
시장	교통비용, 서비스비용	개인적 접촉, 소비자의 취향, 경쟁
노동조건	임금, 임금외의 편익, 고용비용	태도, 노동조합, 기술, 형태, 이동주기, 활용도
외부경제	-	외부효과(긍정적, 부정적), 노동 숙련도, 정보공유, 공공서비스, 명성
에너지	비용	신뢰도, 다양성
사회기반시설	자본, 세금	질, 다양성
자본(고정, 재무)	건설비용, 임대비용, 리스비용	활용도, 투자되는 시기
토지/건물	비용	크기, 모양, 접근성, 서비스, 돈이 들어가는 시기
환경(쾌적성, 정책)	비용, 세금	지역주민의 태도, 노동자들의 선호도
정부정책	보조금, 세금, 벌금	태도, 안정성, 기업여건 등

자료 : Hayter Rogar(1998), 박용규 · 이언오에서 재인용, 2005.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업 입지요인은 각각의 비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특성이나 투자사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노동조건이나 환경, 정부정책 등 외부적 요인들이 핵심 입지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입지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입지 요인의 평균수준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입지요인들 이외 기업이 입지를 탐색함에 있어서 공간적 규모나 범위에 따른 고려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지정책도 이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광역 단위의 입지 결정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특성 등 거시적이 요인이 중시된다. 지역 단위로 들어가면 교통 및 통신

등의 인프라, 노동시장 여건, 교육 및 문화적 환경, 전후방 연관산업에의 접근성 등 핵심적 요인이 중시되며, 장소나 건물 등 가장 세부적인 입지의 결정은 토지 및 건물의 개별적 속성을 중시된다.

〈표2-3〉 공간규모에 따른 입지결정 영향 요인

공간규모	중요하게 고려되는 영향 요인
광역(Region)	정부의 지역정책,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노동력 연계, 시장
지역(Area, Town)	교통 및 통신, 모기업과의 연관성, 노동력 수급, 비용과 직원교육, 원자재와 부품공급자, 서비스에의 접근성, 지역과 중앙정부의 서비스, 주변환경 쾌적성
장소(Site)	도시내 입지, 물리적 속성, 임대기간, 빌딩의 활용도, 서비스와 기반시설에의 접근성, 가격
건물(Building)	구조, 인테리어, 난방 및 조명, 사무집기들, 부수적인 공간, 임대관련 조건

자료 : 박용규 · 이언오, 2005.

산업입지 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각각의 고려요인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신산업분야의 입지요인은 전통적 입지이론에서 중시하는 요인 이외의 연구개발, 삶의 질, 노동조건 등 보다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은 이러한 각각의 입지요인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소수의 핵심요인에 의하여 기업입지가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중소기업 입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1980년대 이후 생산기반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다양화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현재까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중소기업 입지에 대한 연구는 입지 및 특성(이상옥(1998))과 입지실태상의 문제(유병준(1998)), 입지확대를 위한 방안(김영록(1997))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의 입지변화(소진광(1998))와 입지지원방안(이환성(1997))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지식

기반산업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성격 및 연계 특성을 이해·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체제 및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는 기업혁신이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응용하고자 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입지 및 연계특성(권영섭·김동주, 2002), 지역산업군집체제 분석(김동주·권영섭, 2001),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역분석(김영수, 2003)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연구(박영철 외, 2003)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연구와 함께 입지환경요인도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입지환경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립 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업경영과의 연계속에서 요인을 찾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고급인력, 기술, 정보, 연구기반 등의 요인(박용규·강신점, 1997), 임대료 또는 지가와 교통의 편리성 등의 전통적인 요인들(김갑성 외, 2002), 그리고 저렴한 지가, 풍부한 노동력,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정부정책(금융상, 세제상 혜택) 요인(이성근·이관률, 1997)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입지환경요인이 기업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이현주·이승현, 2004), 기업의 기술수준(이성근외, 2003)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2-4〉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지요인

연구자	입지환경요인	
김갑성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료 또는 지가 · 용지확보 용이(확장가능성) · 교통의 편리성 · 세제 및 임대료 보조 등 혜택 · 정부기관 및 협회 등 업무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업체와의 근접성 · 타겟 수요 및 유통망과의 근접성 · 비즈니스서비스의 양호 ·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근접성 · 주거, 교육문화등 생활기반시설
이성근 외 (2003) 최인혁 · 오동욱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적 기반 · 동종 혹은 관련산업의 집적 · 다양한 혁신기관의 집적 · 풍부한 판매시장 · 풍부한 지역노동시장 ·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정보통신망 · 개방적, 혁신적인 산업분위기 · 입지지역의 명성과 이미지 ·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정책 ·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정책
이현주 · 이승현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 임대료 등의 경제적 여건 · 제품시장과의 접근성 · 원/부자재 확보의 용이성 ·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 관련업체(동종, 하청)와의 근접성 · 입지지역의 임금수준 · 생산자 서비스 업체와의 근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비스 기관과의 근접성 · 정부의 지원 · 교통 물류시설 · 용수, 전력 시설 · 산업입지관련법의 규제정도 ·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획득 · 주변환경의 쾌적성 및 편리성
중소기업청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 · 기업집적 등의 기업간 연계 · 산업인력의 수급(질적, 양적) · 산업인력의 재교육여건 ·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관련 세제 및 보조금 · 공장 신증축 및 용도변경 · 유통 및 물류 인프라 · 행정 및 금융 등의 지원서비스

그러나, 이러한 기업입지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지역별 관계설정에만 그치고 있을 뿐 입지환경요인에 입각한 실질적인 입지지원정책의 수립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실태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업종별·지역별로 기업의 입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1. 중소기업 개념과 역할

1) 중소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는 1983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범위 특례업종제도를 도입한 이후 업계의 요구사항을 중소기업 범위에 반영해온 결과, 중소기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중소기업의 개념적 범위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³⁾ 즉, 양적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의 양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질적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나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으

3)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헌법 제123조 3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보호육성규정 및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신용보증, 창업 등 중소기업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며, 중소기업정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충남지역 소재의 제조업중 300인 이하의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에 있어서는 5인이상~300인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표3-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

해당업종	범위 기준
1.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휴양 콘도 운영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화산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운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상시 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전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상시 근로자 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기타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중소기업의 범위)

〈표3-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자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관련(중소기업의 범위)

2) 국민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마샬(Marshall, 1980) 이래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이나 고용창출차원에서의 관심은 탈산업화로 인한 제조업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소기업의 창업이 증대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중소기업에 관한 조사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역할에 대한 이유를 다음의 3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허범도, 2003).

첫째로는, 고용창출, 신산업 육성을 담당할 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고용창출의 원천으로서의 세계 각국에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진흥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으며,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주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경제회복에 선도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이테크 벤처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산업집적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다. 산업집적은 중소기업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서로 융합하고 학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모든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전략이다.

세 번째, 산업 경쟁력 원천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이다. 현재도 여전히 성장의 원천으로서의 대기업의 역할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소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집적은 기업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와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분업에 의한 환경변화에의 유연한 대응과 끊임없는 기술혁신, 그리고 스피노프에 의한 창업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상기 3가지 중소기업역할에 대한 중요성 이외 국민경제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효율성이 낮고 국민경제의 의존도도 높지 않으며,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정책도 지원중심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이러한 인식이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중소기업이 단순한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경쟁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재인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은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대기업을 발생시키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소기업의 고용인구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정치사회 안정의 근간인 고용기회 제공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소기업은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및 계층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활동영역이 상당부분 지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금융, 원재료 수급, 제품판매, 정보의 교류 등 폭넓은 시장관계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세 번째,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경제력 집중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중소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 분업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형성에 있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소기

업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력 뿐 아니라 정치력의 향상 및 사회문화적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성숙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상의 중소기업 역할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상공부 중소기업국의 ‘중소기업편람’에 의하면 ① 내실 있는 경제발전의 원동력, ② 산업의 관련도 제고 및 산업의 경기대응 능력제고, ③ 기술개발 촉진, ④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충족 등으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역할로서, 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국가산업의 활력원, ② 다양한 소비자 욕구충족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화 담당, ③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 감소로 사회 안정화 도모, ④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 ⑤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제효율화의 제고, ⑥ 대기업과의 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한 산업간 균형발전 도모, ⑦ 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1990년대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할은 ① 국민경제의 발전, ② 고용창출, ③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 ④ 지역균형 발전, ⑤ 기술개발 촉진, ⑥ 소비자욕구 충족, ⑦ 수출 촉진, ⑧ 기업가정신 고취, ⑨ 산업간 균형발전 등의 역할로 집약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기대되는 역할로는 ①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 ② 고용창출의 핵심주체, ③ 기술혁신의 주체, ④ 소득재분배에 의한 사회의 안정화, ⑤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⑥ 혁신적 성장 동력의 원천, ⑦ 활력 있는 창조적인 중소기업 등의 역할로 요약될 수 있다(양현봉, 2006).

2. 산업구조변화와 충남 제조업 현황

1) 충남 경제와 산업구조변화

최근 들어 충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왔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역량의 성숙과 더불어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그동안 수

도권규제의 상대적 이익도 지역발전을 견인한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은 지난 10년간 지역경제의 총량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지역경제성장률이 전국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을 들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지역산업구조 및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충남은 1995년 20조 9,415억에서 2005년 현재, 41조 2,809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7.02%의 증가를 보이며 전국최고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RDP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1995년 1,088만원에서 2005년 현재 1,542만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3.55%씩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1,185만원에서 2,185만원으로 동 기간 6.31%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총량 지표에 의하면 충남경제는 최근 들어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2005년 현재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충남은 제조업이 44.5%로 전국 평균에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제조업 중심지역이다. 제조업 생산액만을 전국 대비 비교할 경우 1995년 15조 710억에서 2005년 현재, 74조 9,926억원으로 이 기간 연평균 12.41%씩 증가하여 전국 최고의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있어서도 1995년 5조 7,192억원에서 2005년 18조 3,648억원으로 연평균 12.4%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국평균(6.1%)을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표3-3〉 광역시도 GRDP(2000년 불변가격) 현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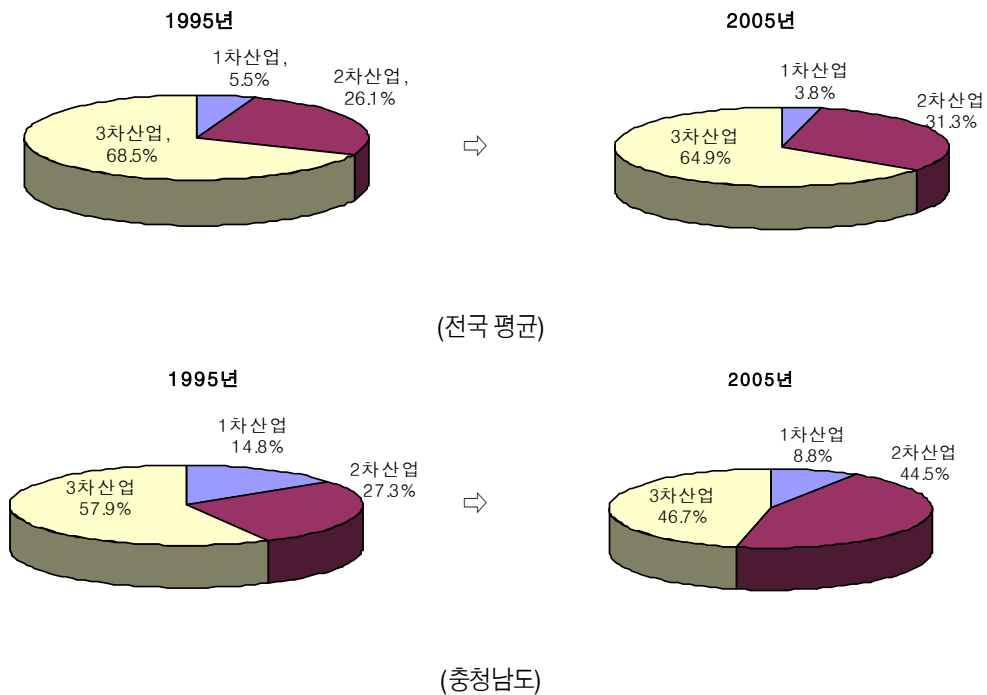
구분	GRDP						연평균 경제 성장률		
	1995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2005년	구성비	(‘95-‘00)	(‘00-‘05)	(‘95-‘05)
서울	127,110,656	26.2%	138,492,266	24.0%	159,587,939	21.9%	1.73%	2.88%	2.30%
부산	32,500,602	6.7%	33,839,838	5.9%	40,862,371	5.6%	0.81%	3.84%	2.32%
대구	20,364,899	4.2%	20,776,260	3.6%	22,985,689	3.2%	0.40%	2.04%	1.22%
인천	25,247,368	5.2%	26,230,654	4.5%	33,007,468	4.5%	0.77%	4.70%	2.72%
광주	11,386,933	2.3%	12,628,813	2.2%	15,504,224	2.1%	2.09%	4.19%	3.13%
대전	11,617,775	2.4%	13,559,020	2.3%	16,462,545	2.3%	3.14%	3.96%	3.55%
울산	-	0.0%	28,355,275	4.9%	36,253,489	5.0%	na	5.04%	na
경기	85,755,745	17.7%	111,793,461	19.3%	157,170,944	21.6%	5.45%	7.05%	6.25%
강원	14,800,680	3.0%	16,462,239	2.8%	18,694,897	2.6%	2.15%	2.58%	2.36%
충북	15,153,938	3.1%	19,521,392	3.4%	24,004,065	3.3%	5.20%	4.22%	4.71%
충남	20,941,551	4.3%	28,962,820	5.0%	41,280,942	5.7%	6.70%	7.34%	7.02%
전북	16,819,535	3.5%	18,977,807	3.3%	22,481,525	3.1%	2.44%	3.45%	2.94%
전남	23,929,502	4.9%	26,907,552	4.7%	31,591,785	4.3%	2.37%	3.26%	2.82%
경북	29,586,021	6.1%	38,445,650	6.7%	53,803,188	7.4%	5.38%	6.95%	6.16%
경남	45,360,747	9.3%	37,728,411	6.5%	48,962,356	6.7%	-3.62%	5.35%	0.77%
제주	4,917,682	1.0%	5,289,484	0.9%	6,587,159	0.9%	1.47%	4.49%	2.97%
(전국계)	485,493,634	100.0%	577,970,942	100.0%	729,240,586	100.0%	3.55%	4.76%	4.15%
변동계수	1.071		1.004		1.006				

주: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

자료: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각 년도.

제조업체수에 있어서는 1995년 2,715개소에서 2005년 현재, 3,932개소로 동 기간 연평균 3.77%씩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는 1995년 112,354명에서 2005년 현재, 166,890명으로 동 기간 연평균 4.04%씩 증가하여 동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충남의 산업구조를 보면 [그림3-1]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27.3%에서 44.5%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3-1] 산업구조변화

〈표3-4〉 산업별 총부가가치액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95~’05)
		(백만원)	(구성비)	(백만원)	(구성비)	(백만원)	(구성비)	
전국	GDP	485,493,634	100.0%	577,970,942	100.0%	729,240,586	100.0%	4.2%
	농림어업	26,558,668	5.5%	27,674,072	4.8%	27,414,625	3.8%	0.6%
	제조업	126,479,780	26.1%	167,876,541	29.1%	228,245,060	31.3%	6.1%
	서비스업	332,455,186	68.5%	381,689,303	66.0%	473,580,901	64.9%	3.6%
충남	GRDP	20,941,551	100.0%	28,962,820	100.0%	41,280,942	100.0%	7.0%
	농림어업	3,105,238	14.8%	3,704,190	12.8%	3,646,774	8.8%	1.6%
	제조업	5,719,167	27.3%	11,168,006	38.6%	18,364,766	44.5%	12.4%
	서비스업	12,117,145	57.9%	14,090,624	48.7%	19,269,402	46.7%	4.8%

자료 :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각 년도.

2) 충남의 제조업 현황과 변화추이

(1) 충남 제조업의 현황

충남의 제조업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에서 충남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충남 제조업은 총 사업체수 3,932개 업체에 166,890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국대비 각각 3.35%, 5.82%에 해당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충남 제조업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은 14.71% 성장한 반면 전국 제조업은 6.89%에 그쳐 두 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전국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충남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에 있어서도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1995년 4.01%에서 2005년 8.12%로 높아졌으며, 사업체 및 종사자 점유율 변화도 각각 3.35%, 5.82%로 증가했다.

〈표3-5〉 충남의 제조업 현황

구분	1995년			2005년			연평균성장률		
	사업체 (개)	종사자 (명)	부가가치 (백만원)	사업체 (개)	종사자 (명)	부가가치 (백만원)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전국	97,284	2,981,813	160,692,893	117,205	2,865,549	312,791,992	1.88	-0.40	6.89
충남	2,715	112,354	6,437,478	3,932	166,890	25,402,932	3.77	4.04	14.71
점유율	2.79	3.77	4.01	3.35	5.82	8.12	-	-	-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2) 제조업 업종별 현황 및 변화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분류에 있어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비율에 있어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이 17.7%로 가장 큰 비중으로 점하고 있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11.32%,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9.87%,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9.5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6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65% 순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계 및 전자관련 산업이 많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9.6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14.58%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던 음식료품 제조업은 10.40%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이외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9.3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7.9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6.13%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모두 1%이하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산업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의 6개 산업중분류에 해당하는 산업들이다.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는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1%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4.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가 27.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4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12.0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충남의 4대 전략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해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및 전자정보기기 산업⁴⁾이 35.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산업⁵⁾이 26.41%를 점유하고 있다.

4) 디스플레이 및 전자정보기기산업의 전후방산업은 '비금속광물제품',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등의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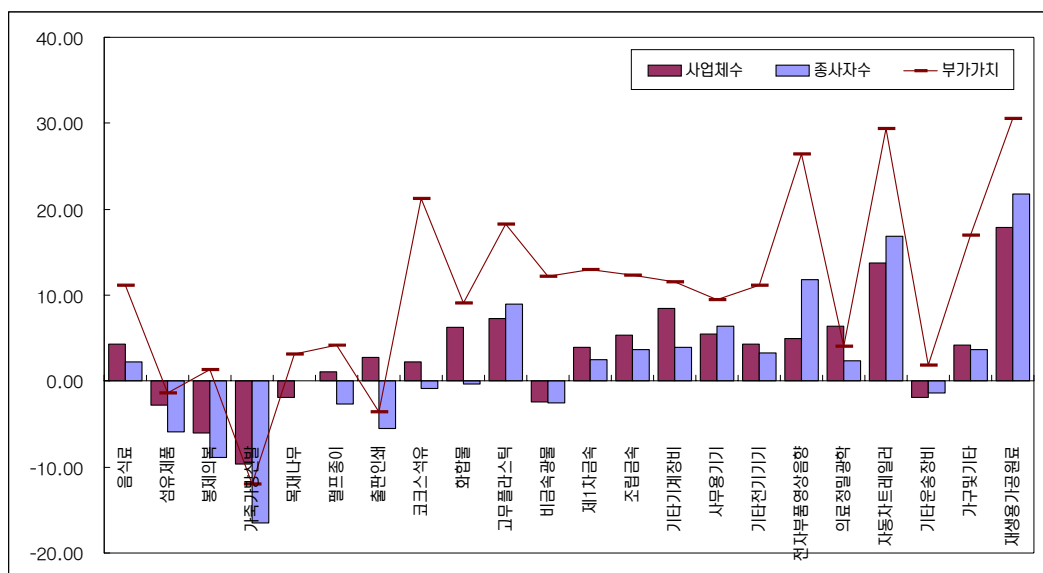
5)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전후방산업은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3-6〉 충남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2005년)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합계 (15~37)	3,932	100.0	166,890	100.0	74,855,820	100.0	25,402,932	100.0
음·식료품 제조업	696	17.70	17,349	10.40	5,562,229	7.43	2,134,041	8.40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09	5.32	5,071	3.04	947,633	1.27	328,419	1.29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5	0.89	960	0.58	89,432	0.12	55,763	0.2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0.20	183	0.11	33,168	0.04	12,460	0.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53	1.35	897	0.54	101,182	0.14	45,296	0.1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0	3.05	3,792	2.27	1,491,892	1.99	529,325	2.0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7	1.70	979	0.59	93,695	0.13	51,294	0.2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5	0.13	898	0.54	7,472,912	9.98	1,115,855	4.3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6	7.02	10,233	6.13	8,446,020	11.28	3,051,865	12.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74	9.51	13,182	7.90	3,109,083	4.15	1,253,376	4.9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40	8.65	9,023	5.41	3,109,137	4.15	1,752,775	6.90
제1차 금속산업	92	2.34	5,708	3.42	4,806,413	6.42	1,271,193	5.0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88	9.87	9,661	5.79	2,182,779	2.92	780,770	3.0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45	11.32	15,549	9.32	4,122,022	5.51	1,473,773	5.8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7	0.43	1,446	0.87	482,579	0.64	175,617	0.6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64	4.17	8,681	5.20	2,634,275	3.52	822,638	3.2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22	3.10	32,863	19.69	17,355,968	23.19	6,953,319	27.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1	1.55	2,183	1.31	344,676	0.46	137,161	0.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2	7.93	24,329	14.58	11,404,671	15.24	3,154,997	12.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0.36	402	0.24	71,423	0.10	27,799	0.1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8	2.75	3,128	1.87	863,849	1.15	233,486	0.92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6	0.66	373	0.22	130,782	0.17	41,710	0.16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충청남도, 2005.

최근 10년간의 제조업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사업체 수 3.77%, 종사자 4.04%, 부가가치 14.71%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이 부가가치 측면에서 연평균 3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연평균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변화중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13.35%)', '기타기계장비제조업(8.26%)' 등 자동차 및 기계관련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도 17.92%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21.78%)',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5.64%)' 등의 기초소재형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과 부가가치 증가율에 있어서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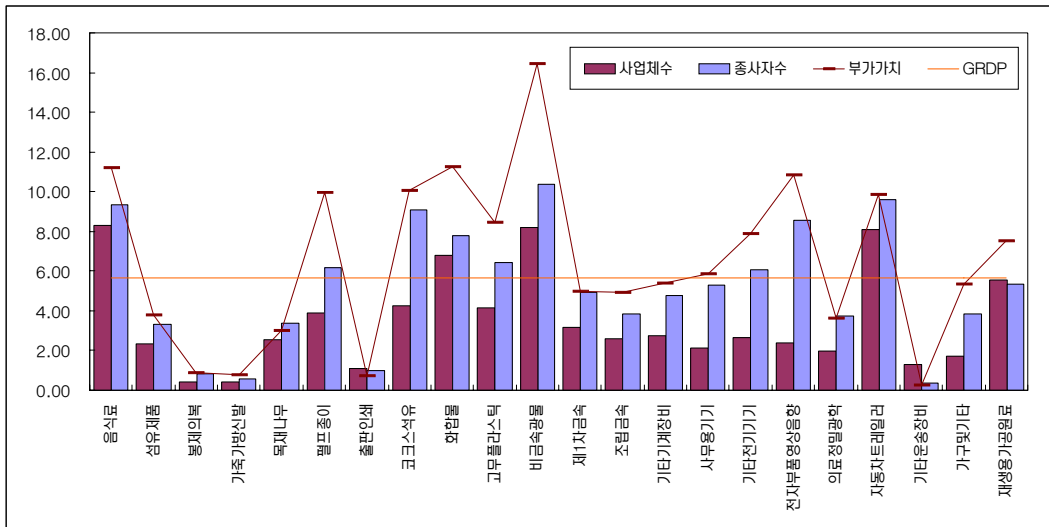


[그림3-2] 충남 제조업의 연평균성장률(1995-2005)

아래 [그림3-3]은 전국 대비 각산업의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국대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충남의 평균적 위치를 나타낸다고 볼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 GRDP보다 높은 산업은 전국대비 경쟁력이 있으며, 충남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 볼 수 있다.

제조업 업종별로 부가가치 측면에서 전국대비 10%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6.4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11.28%), 음식료품제조업(11.1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0.8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0.09%)이 있다. 또한, 충남 평균이상의 점유율 가지고 있는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9.9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8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8.4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7.89%), 재생용 가공원생산업(7.53%),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5.8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3-3] 제조업 업종별 전국대비 점유율 (GRDP 포함)

이를 각 산업별로 구분해서 각 지표별로 최근 10년간의 전국의 성장률과 비교할 경우는 아래 [그림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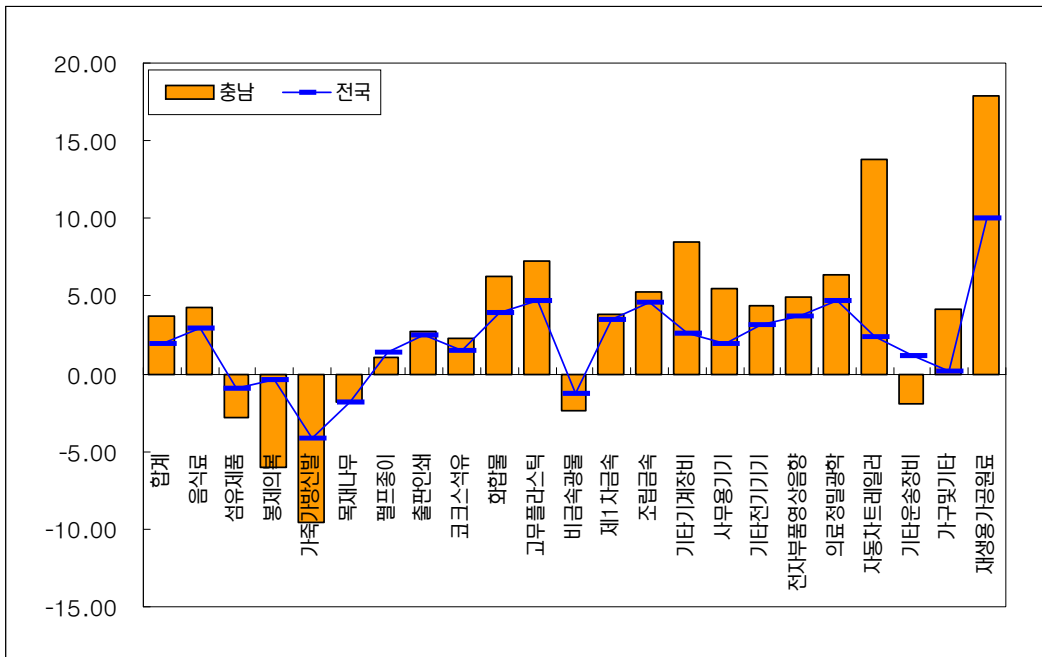
먼저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이 가장 많은 17.92%가 증가하였다. 전국 업종별로도 가장 많은 9.99%의 증가를 보여 산업이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충남이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충남의

전략산업중의 하나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국의 1.53%에 비해 13.75% 증가해 충남의 전략산업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 중 전국의 감소를 나타내는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을 비롯한 5개 업종은 충남 역시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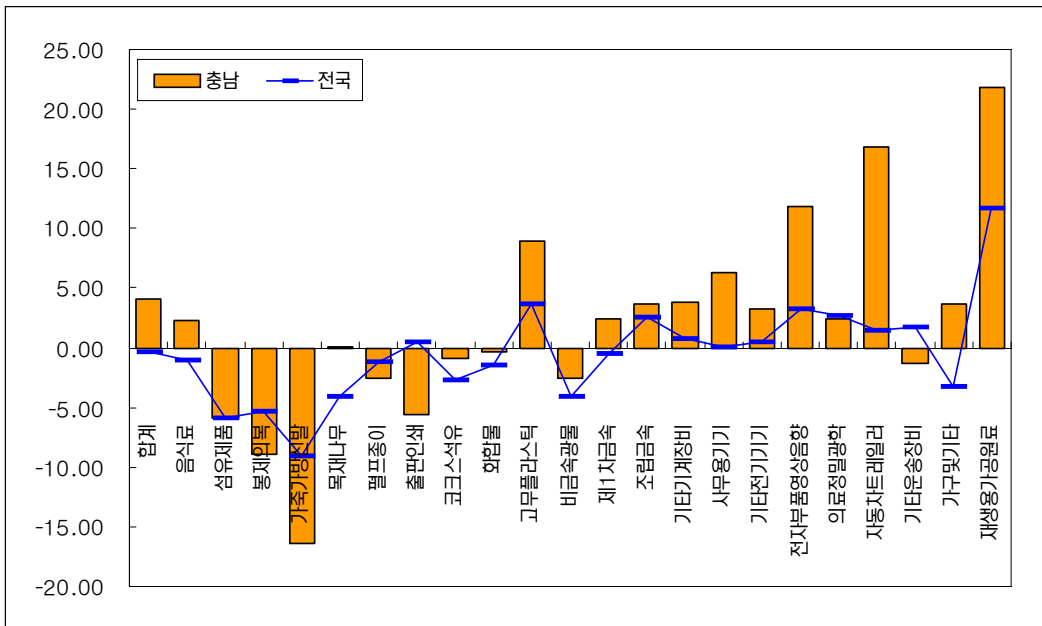
종사자수의 역시 사업체수와 비슷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재생용 가공 원료 생산업이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고, 충남 역시 제조업종별로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체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도 16.81%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 있어서는 큰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도 11.78%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 이전대비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증가율과는 달리 종사자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업종이 11개 업종이며, 충남도 역시 전국적 추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과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전국 감소율의 2배 가까이에 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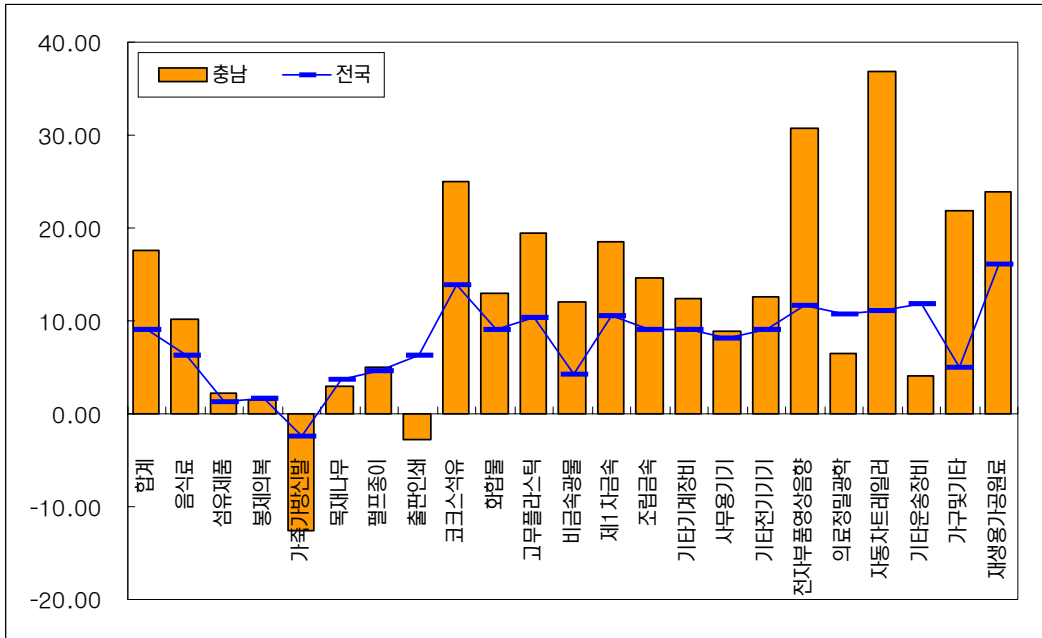
생산액 변화에 있어서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30%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두 산업은 전국적으로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지만, 충남 내에서는 산업이 집적화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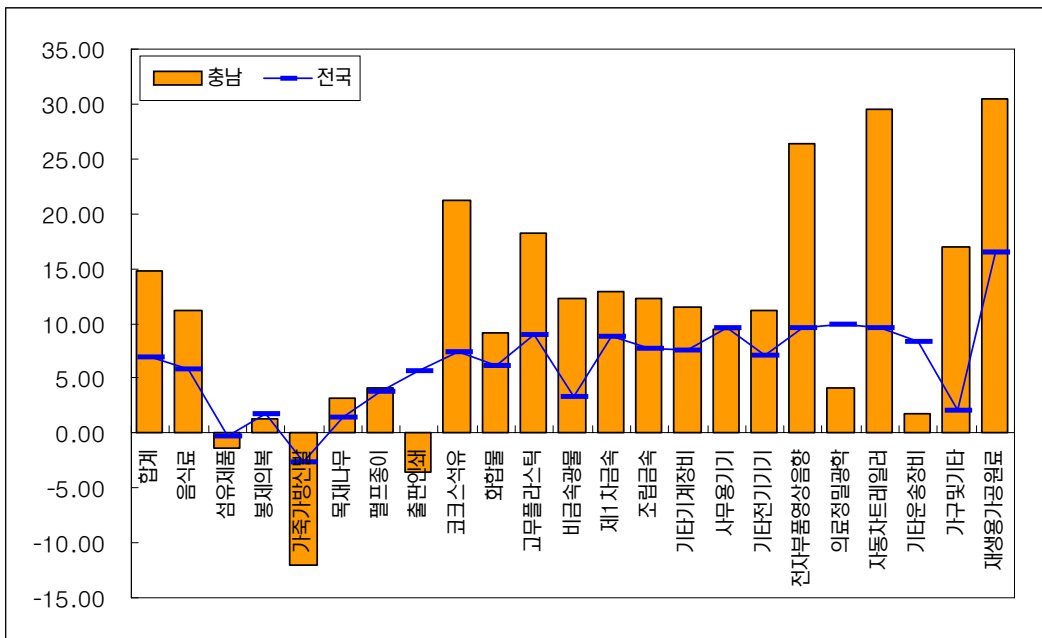
[그림3-4] 업종별 사업체수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3-5] 업종별 종사자수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3-6] 업종별 생산액 성장률 비교(1995-2005)



[그림3-7] 업종별 부가가치 성장률 비교(1995-2005)

부가가치 성장률 변화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이 30.52%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에 있어 높은 증가를 나타냈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역시 연평균 성장률 29.44%를 나타내고 있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의 높은 증가로 점차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도 26.45%의 높은 부가가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위의 전국대비 충남 산업의 비중과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충남은 최근 들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내 산업적 기반이 적고, 생산기반이 열악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내 큰 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비금속광물제품은 사업체 및 종사자 증가는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증가가 확대되어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7〉 업종별 성장률 비교(1995~2005)

산업별	충남				전국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합계 (15~37)	3.77	4.04	17.62	14.71	1.99	-0.30	8.99	6.97
음·식료품 제조업	4.30	2.27	10.16	11.22	2.99	-1.03	6.29	5.78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85	-5.91	2.27	-1.40	-0.90	-5.84	1.28	-0.24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6.00	-8.87	1.48	1.35	-0.40	-5.36	1.58	1.8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9.62	-16.46	-12.58	-11.99	-4.10	-9.10	-2.39	-2.6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87	0.09	3.01	3.14	-1.79	-4.13	3.66	1.5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6	-2.62	5.08	4.18	1.38	-1.14	4.54	3.7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7	-5.57	-2.70	-3.63	2.47	0.45	6.36	5.7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2.26	-0.92	25.00	21.28	1.48	-2.66	13.97	7.4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29	-0.29	13.03	9.07	3.92	-1.49	9.14	6.1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23	9.00	19.39	18.24	4.76	3.74	10.45	8.9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7	-2.53	11.96	12.25	-1.22	-4.12	4.26	3.32
제1차 금속산업	3.86	2.45	18.53	12.92	3.49	-0.43	10.52	8.89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5.32	3.64	14.58	12.33	4.57	2.50	9.01	7.7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43	3.87	12.48	11.55	2.58	0.72	9.00	7.5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5.45	6.37	8.96	9.49	1.99	0.09	8.18	9.5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36	3.22	12.58	11.21	3.13	0.45	9.09	7.17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4.99	11.78	30.70	26.45	3.70	3.21	11.68	9.6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34	2.42	6.44	4.09	4.75	2.65	10.81	9.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75	16.81	36.84	29.44	2.34	1.53	11.09	9.6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2	-1.36	4.01	1.82	1.12	1.72	11.87	8.3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4.14	3.67	21.82	16.94	0.14	-3.22	5.04	2.03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7.92	21.78	23.98	30.52	9.99	11.73	16.17	16.47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3.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1) 충남 중소기업의 변화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비중

2005년 기준으로 제조업체에 있어 충남의 중소기업은 3,873개 업체 112,88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59개 업체, 54,009명이 종사하고 있다. 충남소재의 기업은 1.5%에 해당하는 59개의 대기업이 전체생산액의 61.0%를 담당하고 있으며, 56.5%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의 98.5%, 종사자수의 67.4%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과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각각 39.0%, 부가가치 창출의 43.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8〉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황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구성비 (%)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합 계	3,932	166,890	74,855,820	25,402,932	100.0	100.0	100.0	100.0
5 ~ 9	1,375	8,942	1,587,508	524,951	34.97	5.36	2.12	2.07
10 ~ 19	1,039	14,063	2,697,165	1,018,202	26.42	8.43	3.60	4.01
20 ~ 49	895	27,766	5,905,072	2,137,369	22.76	16.64	7.89	8.41
50 ~ 99	314	21,952	6,730,871	2,705,491	7.99	13.15	8.99	10.65
100 ~ 199	191	26,042	7,856,672	2,932,618	4.86	15.60	10.50	11.54
200 ~ 299	59	14,116	4,423,732	1,730,961	1.50	8.46	5.91	6.81
300명이상	59	54,009	45,654,800	14,353,340	1.50	32.36	60.99	56.50

자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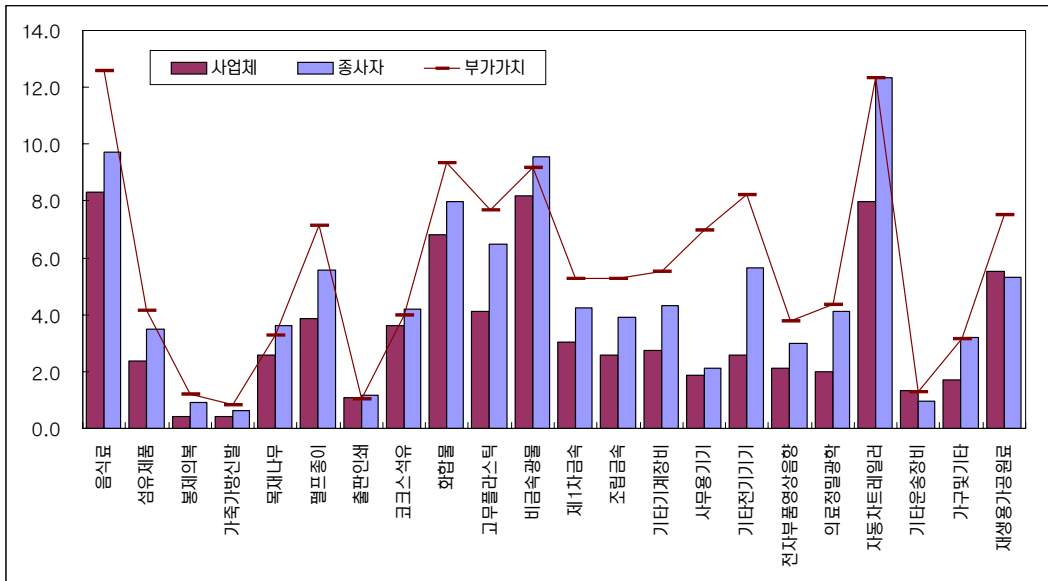
종사자규모별로 전국대비 비교했을 경우 충남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있어 전국보다 많은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2005년 현재 제조업에 있어 전국의 대기업 비중은 0.6%에 불과하며, 종사자수에 있어서도 23.7%, 부가가치규모에 있어서도 48.4%인 반면, 충남은 사업체수는 두 배 이상 많은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32.4%, 부가가치규모는 56.5%로 지역산업에 대기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은 전국의 9%에 해당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석에 있어 최근 10년간 증가에 있어 종사자별 구성비를 비교할 경우 300인이상의 대기업은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측면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어 규모화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대적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충남의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전국대비 충남의 중소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수에 있어 3.32%,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5.1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생산액과 부가가치에 있어서는 각각 6.94%와 6.85%로 사업체 및 종사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측면에 있어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13.61%,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2.33%로 전국대비 1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도 각각 9.35%, 9.17%로 지역내 산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수에 있어서도 음·식료품 제조업 8.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금속광물제품 8.1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9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2.33%이 전국대비 10%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 9.7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9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56%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산업적 집중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3-8] 충남 중소 제조업의 전국 점유율 분포

충남 지역내에서의 업종별 분포에 있어서도 음·식료품제조업이 전체 중소제조업부가가치의 17.48%를 점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16.09%,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10.50%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산업특성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가공조립형산업이 전체부가가치 창출의 41.2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소재형산업이 36.51%, 생활관련형 산업이 19.26%를 나타내고 있다.

〈표3-9〉 충남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

구 분	산업내 구성비				전국대비 점유율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부가가치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3.32	5.16	6.94	6.85
음·식료품 제조업	17.89	14.04	17.24	17.48	8.30	9.72	12.53	12.6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5.40	4.49	3.25	2.97	2.35	3.50	4.82	4.17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0.90	0.85	0.31	0.50	0.42	0.91	0.95	1.20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0.21	0.16	0.11	0.11	0.40	0.64	0.86	0.8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37	0.79	0.35	0.41	2.56	3.62	2.62	3.2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05	2.70	2.60	2.56	3.87	5.57	7.02	7.1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3	0.87	0.32	0.46	1.09	1.18	1.05	1.0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10	0.08	0.11	0.12	3.60	4.19	2.22	4.0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7.07	7.74	13.33	16.09	6.82	7.98	7.52	9.3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60	10.22	7.89	7.45	4.13	6.48	8.01	7.7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73	6.30	5.26	6.37	8.17	9.56	8.83	9.17
제1차 금속산업	2.25	2.92	6.28	4.97	3.01	4.23	5.38	5.2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9.99	8.25	7.30	6.90	2.58	3.91	6.01	5.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31	10.90	9.51	9.54	2.74	4.33	5.68	5.5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39	0.44	1.60	0.95	1.88	2.13	9.86	7.0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13	6.17	7.08	5.90	2.59	5.64	9.13	8.2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74	4.22	2.72	3.64	2.14	3.01	3.08	3.7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58	1.93	1.18	1.24	1.99	4.11	5.05	4.3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77	13.96	11.63	10.50	7.98	12.33	12.37	12.3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6	0.36	0.24	0.25	1.34	0.94	1.56	1.2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76	2.26	1.25	1.19	1.71	3.22	3.37	3.1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67	0.33	0.45	0.38	5.54	5.33	6.48	7.53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2005.

2)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1) 중소기업의 특화 및 특화도 분석

지역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클수록 지역의 관련 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입지상(LQ:Location Quotient)⁶⁾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입지상이란 어떤 지역 특정산업의 구성비를 전국의 동일 산업 구성비와 비교하여 해당지역이 특화되어 있는 가를 보는 지수이다. 입지상계수가 1보다 높을 경우 전국에 비하여 해당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 또는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보다 작을 경우는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입지상계수를 측정하는 데에는 분석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이용되고, 입지상의 용도 역시 다양하여 지역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지역의 상대적 효율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잠재적인 수입대체성 산업이나 수출신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성 산업을 찾아낼 수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는 2005년 충남지역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에 관한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입지상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특화여부 및 특화업종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4가지 변수의 입지상계수를 측정하여, 이 중 생산액 및 부가가치 입지상이 1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을 특화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입지상계수를 이용해 연도별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특화여부 및 수준 등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3-10>와 같다. 업종별 특화도의 변화에 있어 입지상계수가 1.0~2.0을 하위그룹, 2.0~4.0을 중위그룹, 4.0 이상을 상위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충남지역의 중소기업의 특화업종변화를 살펴보면, 1993년과 2001년에 가장 적은 6개, 1995년, 1996년에 가장 많은 11개 업종을 가지며, 특화업종수의 변화가 다소 큰 편이다.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의 2개 업종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6) 특정 지역의 특정산업(업종)과 전국의 특정산업(업종)간의 구조를 비교하여 특정지역의 산업(업종)이 전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수 값이 1이상일 경우 전국에 상대적으로 비해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특화업종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3년 이후에 특화된 업종으로 새롭게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특화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의료·정밀기기·시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4개 업종이며, 1995년 이후에 기존 특화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업종이 유일하다.

업종별 특화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비금속광물제품은 1993년, 컴퓨터·사무용기기 업종은 1993년과 1996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2002년에 각각 중위그룹에 속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업종들의 해당시기를 제외하면, 특화우위가 있는 업종들은 특화우위가 있는 모든 기간 하위그룹에 속하고 있다.

〈표3-10〉 중소기업의 특화 업종변화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음·식료품	○	○	○	○	○	○	○	○	○	○	○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	○	○	○	○	○	○	○		○	
출판·인쇄·기록매체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	●	●	●							
화합물·화학제품		○	○						○	○	○
고무·플라스틱 제품		○	○	○	○	○	○	○	○	○	○
비금속광물 제품	◎	○	○	○	○	○	○	○	○	○	○
제1차 금속산업			○	○							
조립금속제품				○	○	○					
기타 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		○	◎	○	○	○	○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	○	○			○	○	○	○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	○		○		○	○	○	●	○
기타 운송장비											
가구·기타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업종수	6	9	11	11	8	7	7	8	6	8	8

주 : ○ 하위그룹 ◎ 중위그룹 ● 상위그룹

자료 :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2005.

(2)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분석

제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과 중소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산업(업종)의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위당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도출된 경쟁력지수를 활용하여 해당업종에 대한 특정지역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경쟁력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업체당 생산액,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업체당 부가가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등 4개의 변수를 각각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충남지역의 음식료품 업종의 생산액 경쟁력 지수는 충남지역의 음식료품업종의 업체당 생산액을 전국의 음식료품 업종의 업체당 생산액으로 나누면 된다. 일반적으로 경쟁력지수(P)가 1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역의 경우가 성립한다. 또한 1과 같으면 전국평균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쟁력 지수 중에서 종사자1인당 생산액 및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기준으로 경쟁력 지수 모두 1보다 큰 업종만을 해당지역의 경쟁력비교우위 업종으로 정의하였다. 경쟁력지수를 이용해 연도별 충남지역 중소제조업의 특화여부 및 수준 등을 파악한 결과는 아래 <표3-11>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충남지역 전체 제조업에 비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비교우위 수준이 높다. 출판·인쇄·기록매체관련 제조업이 2003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은 1998년, 컴퓨터 사무용기기제조업은 대부분의 기간이 상위그룹에 속하며, 나머지 업종과 시기는 중위그룹과 하위그룹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 22개 업종 중에서 무려 17개가 경쟁력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이며, 게다가 경쟁력 비교우위수준이 높은 업종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물론 모든 업종의 경쟁력비교우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전략산업과 연고산업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표3-11〉 충남 중소기업의 경쟁력 비교우위 업종 변화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음·식료품	○	○	○	○	○	○	○	○		○	○
섬유제품		○	●	○	○	○	○	○	○	○	○
봉제의복·모피제품				○	○		○		○		
가죽·가방·신발	○	●	●	○	○		○	○	○	●	●
목재·나무제품	○	○	○	○	○	●	●	●	●	●	●
펄프·종이·종이제품	○		○	○	○	○	●	○	○	○	○
출판·인쇄·기록매체	○		○	○	○	○	○	○	○	○	●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	●	●	●							
화합물·화학제품										○	
고무·플라스틱 제품	○	○	○	○	○	○	○	○	○	●	○
비금속광물 제품											
제1차 금속산업		○	○	●		○		●		●	○
조립금속제품	○	○	○	○	○		○	○	○	○	○
기타 기계·장비		○	○	○	○	○	○	○	○	○	○
컴퓨터·사무용기기	●		●	●	●	●	●	●	○	●	●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	○	●	○	○	○	○	○	○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	○	○	○	○	○	○		○	○
의료·정밀 광학기기·시계		●	●	●	●	●	○	○	●	●	●
자동차·트레일러	○	○	○				○	○	○	○	○
기타 운송장비		●	●	●	○	●			○	○	●
가구·기타제조업						○	●	○	○	○	○
재생용 가공원료 제조업	●	○	○	○	○						
업종수	13	15	18	18	16	15	16	16	15	18	17

주 : ○ 하위그룹 ● 중위그룹 ● 상위그룹

자료 :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2005.

제4장 충남 중소기업의 입지 실태 분석

1. 충남 중소기업의 공간적 분포 및 변화

앞 장에서는 현재 충남의 경제현황과 제조업 현황, 그리고 중소기업이 충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알아보았다. 앞의 제조업 전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과 변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남의 제조업은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충남 경제를 더욱 활발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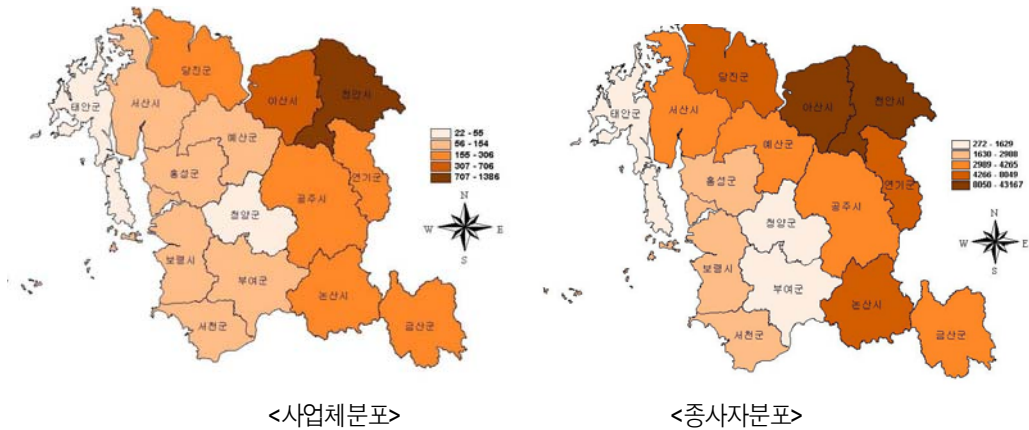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충남에 어떠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업종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소기업의 입지분석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산업적 특성별로 어떠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지역적으로 분포와 산업입지적 특성별로 지역별 입지분포를 살펴보고 실제로 기업입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입지요인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공간적 분포 및 변화

(1)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변화

충남의 중소기업 분포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이 발달한 당진군, 그리고 경부축을 따라 연기군 논산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안(34.33%)과 아산(17.19%)이 충남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부축을 따라 논산계룡(7.60%; 논산7.35%) 연기(6.94%), 금산(5.77%) 순으로 산업이 집적되어 있다.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의 4개 권역별로 구분하면 북부권에 59.82%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해안권 7.3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분포에 있어 상위 5개시군은 하위 5개시군의 8배에 해당돼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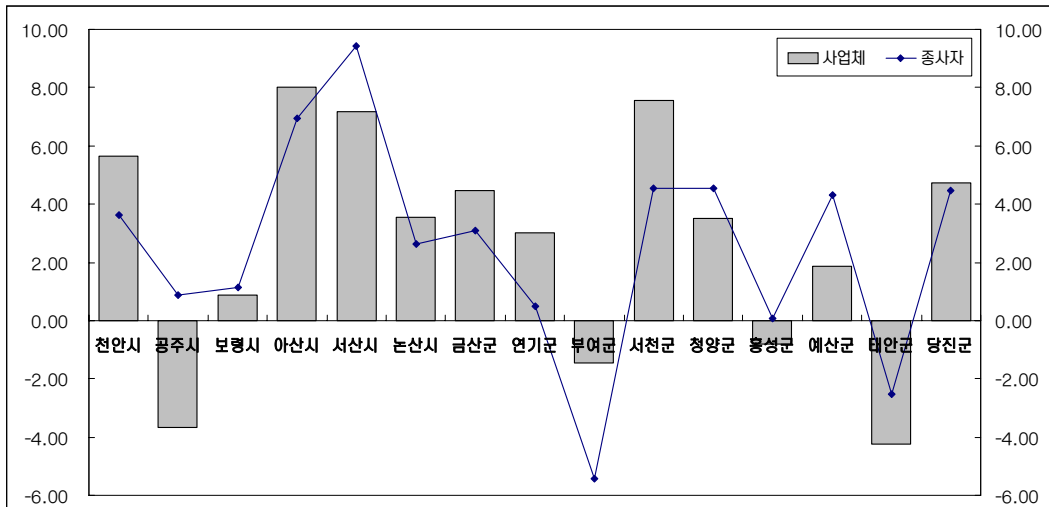


[그림 4-1] 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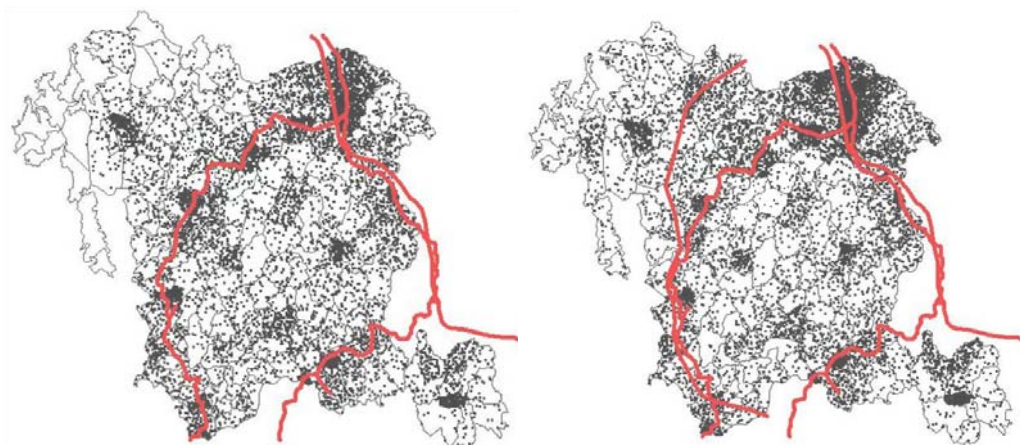
충남 16개 시군의 최근 10년간의 중소기업의 증가율에 있어서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태안군과 내륙지역에 위치한 부여군, 공주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업체 분포와는 달리 서북부권이 제조업 종사자 분포가 높게 나타나 북부권이 제조업의 규모화가 큰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산시와 아산시로 1995년대비 사업체와 종사자에서 두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안군은 동기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에 있어 각각 35.3%, 22.5%감소하였고, 부여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증가에 있어서도 북부권의 아산, 서산, 천안, 당진은 동기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어 제조업은 물론 중소기업 증가 역시 충남의 기업증가(48.28%)를 선

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권 4개 시·군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입지규제(공장총량제 등)의 영향과 표준화된 제품생산 설비의 자연적인 지방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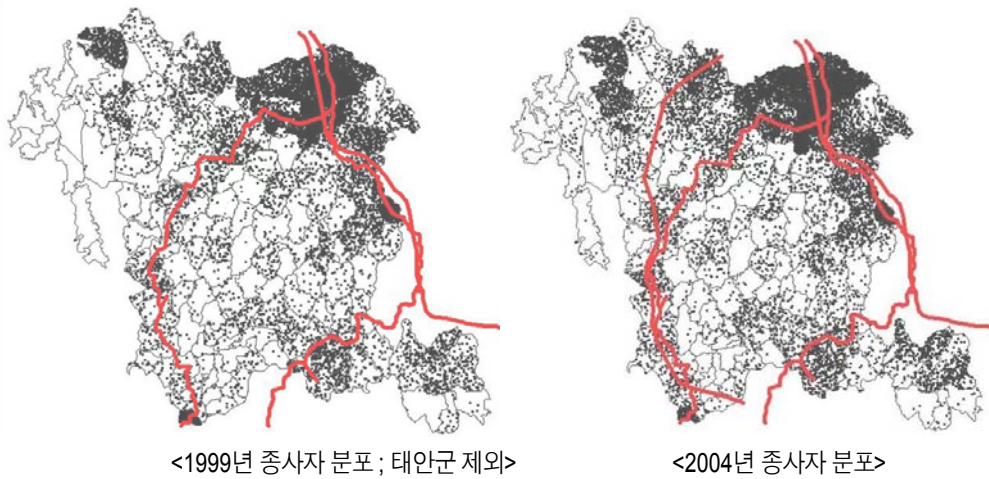
[그림4-2]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연평균성장률(1995-2005)



<1999년 사업체 분포 ; 태안군 제외>

<2004년 사업체 분포>

[그림4-3] 지역별 사업체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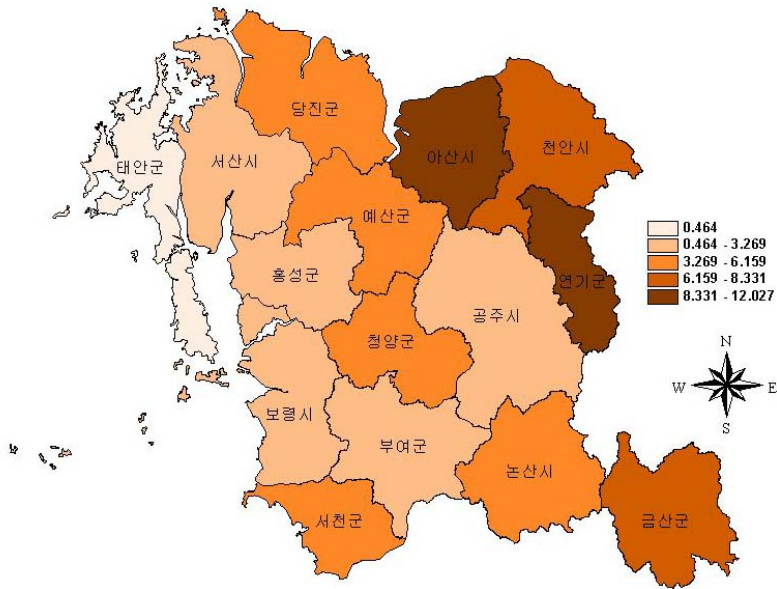


[그림 4-4] 지역별 종사자수 분포 변화

(2) 중소기업의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변화

지역의 고용창출은 기업이 외연적 확장과 기업의 유치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지역내에서 기업의 확장이나 유치등으로 인해 제조업이 성장하면 직접적인 고용증가와 산업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해 지역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조업의 증가로 인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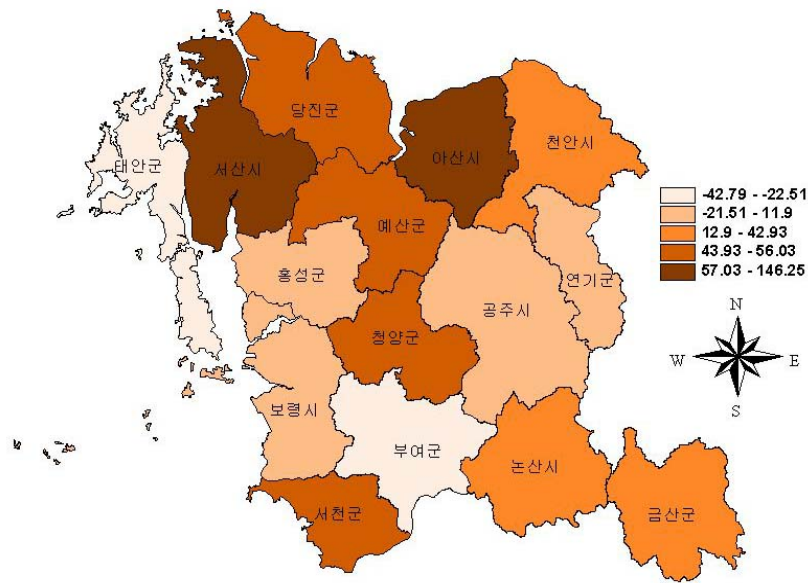
먼저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살펴보면, 아산시(12.11%)와 연기군(10.1%)이 가장 많은 집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천안시와 금산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아산시가 충청도내 가장 높은 22.1%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인구대비 종사자 비율

인구대비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이 지역의 제조업 의존도 및 산업화를 나타내고 있다면, 인구대비 종사자 비율의 변화는 지역의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지역의 고용창출은 인구대비 제조업 종사자비율의 변화율로 볼 수 있다.7) [그림 4-6]에서 고용창출이 내륙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산업화의 증대로 지역의 산업활동이 점차 북부권 이남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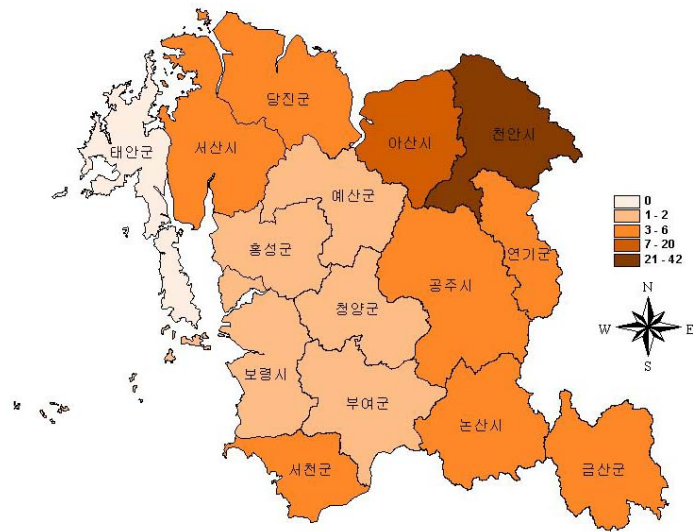
7) 박용규·이언오(2005)는 해당지역의 인구대비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 증가분으로 제조업 해당지역에 미치는 고용창출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4-6] 충남중소제조업의 고용창출

두 번째로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는 천안지역이 42.0%, 아산지역이 20.4%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지역은 대부분 5%미만을 나타내 대기업이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했을 경우는 충남 제조업 전체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천안, 아산, 서산지역이 78.5%로 충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대부분 2% 안밖으로 나타나 지역적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분포 그리고 변화율, 부가가치의 창출 등의 지역적 분포특성으로 기준하여 볼 때 현재의 제조업 분포는 천안아산 및 연기 지역을 중심으로 북부권 및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점차 천안아산지역에서 서부로 인접하고 있는 서산·당진, 예산·홍성 등의 남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7]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일반적으로 기업분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이나 산업활동의 입지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단계이며,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로의존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에 있어서 클러스터의 이점이 점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는 경부축과 북부권지역에서 비북부권과 서해안권 지역으로 제조업의 분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공주, 부여 등의 내륙권은 영향이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4-1〉 중소제조업의 공간적 분포 현황

지역별	사업체수	사업체수 증감 (1995-2005)	종사자수	종사자수 증감 (1995-2005)	인구대비 종사자비율	고용창출	부가가치 점유율
천안시	1,386	73.47	43,167	42.93	8.33	42.93	42.0
공주시	206	-31.33	4,135	9.22	3.27	9.22	3.2
보령시	134	8.94	2,501	11.90	2.58	11.90	1.3
아산시	706	115.90	24,877	95.56	12.03	95.56	20.4
서산시	154	100.00	4,265	146.25	2.97	146.25	5.1
논산(계룡)	306	41.67	6,436	29.65	4.11	29.65	5.6
금산군	269	54.60	4,193	35.30	7.87	35.30	3.4
연기군	304	34.51	8,049	4.96	10.01	4.96	5.6
부여군	89	-13.59	1,487	-42.79	2.03	-42.79	0.7
서천군	151	106.85	2,988	56.03	5.18	56.03	2.7
청양군	55	41.03	1,629	55.74	5.22	55.74	1.2
홍성군	93	-7.92	2,029	0.64	2.46	0.64	1.1
예산군	136	20.35	4,120	52.25	5.05	52.25	2.2
태안군	22	-35.29	272	-22.51	0.46	-22.51	0.2
당진군	216	58.82	6,915	54.63	6.16	54.63	5.2

2) 계획입지 분포 및 공장용지의 공간적 분포

앞 절에서는 지역별 입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역의 변화에 있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의 증가는 곧 제조업의 외연적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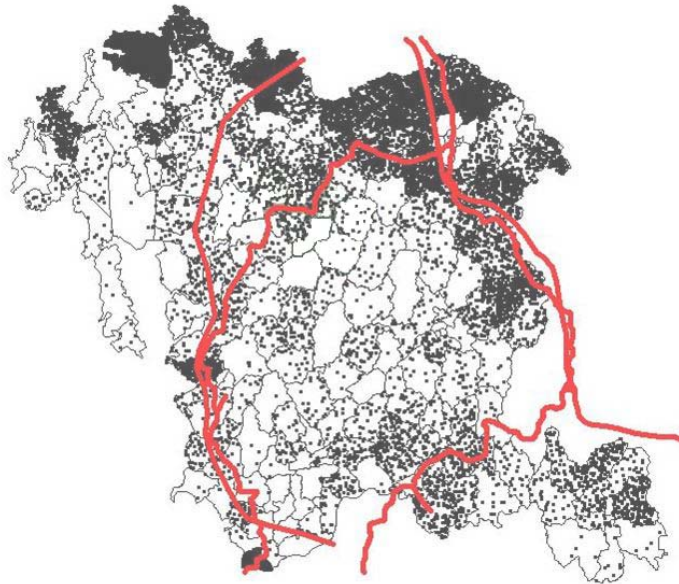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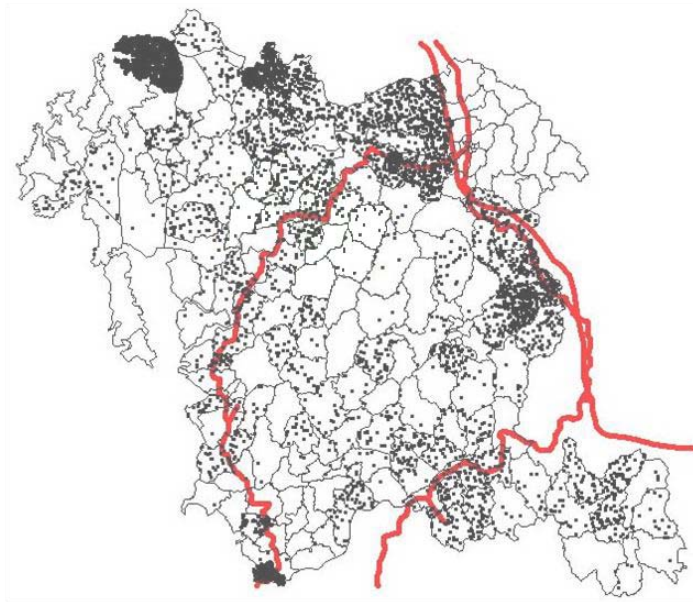
충남의 공장용지 면적은 2005년 현재 74,754.3천㎡로 1995년의 35,189.1천㎡에 비해 연평균 7.8%씩 증가하였다. 이중 특히 태안·보령·서천 등 서해안권의 공장용지 면적 증가속도(연 11.0%)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륙권의 경우 같은 기간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이 연 5.6%로, 충남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의 경우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은 연 8.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북부권 공장용지 면적은 충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64.8%에서 2005년 65.8%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4-2〉 도내 각 권역별 공장용지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95-’05)
	(천㎡)	(비율)	(천㎡)	(비율)	(천㎡)	(비율)	
북부권	22,801.3	64.8%	37,342.9	66.4%	49,189.4	65.8%	8.0%
서해안권	2,250.8	6.4%	4,687.4	8.3%	6,385.0	8.5%	11.0%
내륙권	6,688.3	19.0%	9,138.7	16.3%	11,578.0	15.5%	5.6%
금강권	3,448.7	9.8%	5,062.3	9.0%	7,601.8	10.2%	8.2%
충남 계	35,189.1	100.0%	56,231.3	100.0%	74,754.3	100.0%	7.8%

자료: 통계청(<http://kosis.nso.go.kr>).

그러나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율은 1995년~2000년 기간 연 9.8%에서 2000년~2005년 기간 연 5.9%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공장용지 면적 증가율은 북부권이 연 10.4%에서 5.7%, 서해안권이 연 15.8%에서 6.4%, 내륙권이 연 6.4%에서 4.8%, 금강권이 연 8.0%에서 8.5% 증가하여 금강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8] 공장용지 변화 (1995-2005)

충남을 포함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의 촉진 차원에서 산업기지 및 공단을 활발히 조성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입주비율은 2005년 현재 전체의 28%로 1,182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산업단지별로 중소기업의 분포는 국가산단에 111개 업체, 지방산단에 289개업체, 농공단지에 75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5인 이상으로 비교적 회사규모를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의 85%, 종사자의 53%에 해당하는 5인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사실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개별입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3〉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제조업체 수

구분	제조업체수	산업단지외	산업단지				계획입지 기업비율
			소 계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천안시	1,386	1,081	305(3)	39	176(3)	90	22.0
공주시	206	153	53			53	25.7
보령시	134	57	77(2)	(1)	(1)	77	57.5
아산시	706	620	86(5)		36(4)	50(1)	12.2
서산시	154	115	39(12)	(1)	7(7)	32(4)	25.3
논산(계룡)시	306	230	76(1)		41	35(1)	24.8
금산군	269	222	47(1)		(1)	47	17.5
연기군	304	220	84(7)		55(7)	29	27.6
부여군	89	61	28			28	31.5
서천군	151	88	63			63	41.7
청양군	55	11	44(1)			44(1)	80.0
홍성군	93	30	63(1)			63(1)	67.7
예산군	136	74	62			62	45.6
태안군	22	3	19			19	86.4
당진군	216	80	136(5)	72(4)		64(1)	63.0
합계	4,227	3,045	1,182(38)	111(6)	315(23)	756(9)	28.0

주 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2005)의 중소기업현황을 이용하여 재작성.

2) 산업단지현황중 ()는 대기업 업체수임.

자료 : 2005년 4/4분기 산업단지 현황, 충청남도.

위의 <표4-3>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계획입지된 공업단지보다는 대부분 도시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또는 기타 지역에 개별입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남도의 『산업입지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 전체적으로 기업의 신규 유치 및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공급규모 확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천안 제5지방산업단지, 사곡지방산업단지 등 총 74,891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낙후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산업단지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논산·계룡의 국방산업, 금산의 한방바이오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표4-4> 산업단지 조성계획 (2006~2020)

구 분	기조성면적 (2006년 1/4분기 현재)	추가조성규모 (2006년~2020년)
합계 (천㎡)	51,149	74,891

이는 산업육성에 있어 무분별한 개별입지 확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차원에서 산업집적을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업종간 연계 강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클러스터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배치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화되는 다기능 복합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의 연구보고서⁸⁾에 의하면 계획입지의 경우 64.7%가 입지환경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개별입지 기업의 경우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26.3%에 불과해 계획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는 조성계획 중인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산업단지 입주에 있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8)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 2005.

2. 산업입지특성에 따른 기업입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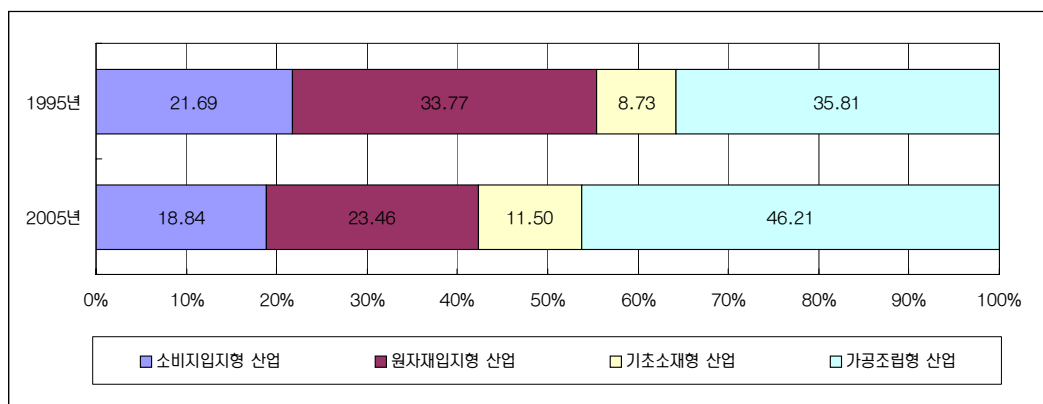
1절에서는 기업이 충남에 공간적으로 얼마나 분포하는지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기업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어떠한 입지패턴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입지특성에 따른 기업입지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의 입지특성을 반영한 구분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조업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업종구분 방식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23개 중분류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소비지입지형 산업, 원자재입지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의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각 유형별 입지특성과 세부업종내역은 아래<표4-5>와 같다.

<표4-5>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 내역

유 형	입지특성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비지 입지형 산업	- 대도시 지역에서의 입지성향이 강함	- 17 섬유제품 - 18 의복 및 모피제품 - 19 가죽, 가방, 마구류, 신발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원자재 입지형 산업	- 원부자재의 산지 또는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 - 전국에 걸쳐 비교적 고루게 분산하는 경향	- 15 음식료품 - 16 담배 - 20 목재 및 나무제품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26 비금속광물제품
기초소재형 산업	- 임해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입지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 27 제1차금속 -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가공조립형 산업	-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산업(foot-loose industry) - 일정지역에서의 집적성향이 강함	- 28 조립금속제품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 30 사무, 계산, 회계용 기기 -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 35 기타 운송장비

자료 : 민경화·김영수,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산업연구원, 2003.

최근 10년간의 충남의 산업변화를 살펴보면 가공조립형산업은 35.8%에서 46.2%로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원자재입지형산업은 33.8%에서 23.5%로 상대적으로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기초소재형산업이 6.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어 가공조립형산업이 6.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진 원자재입지형산업의 경우는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입지형산업의 경우는 동기간 2.2%의 성장률을 보여 충남에서 기초소재형산업과 가공조립형산업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9] 업종별 비중 변화추이(1995-2005)

1) 중소기업의 지역별 산업특성

앞 장의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에서 살펴본 것처럼 충남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군별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산업특성은 아래 [그림4-10]과 <표4-6>으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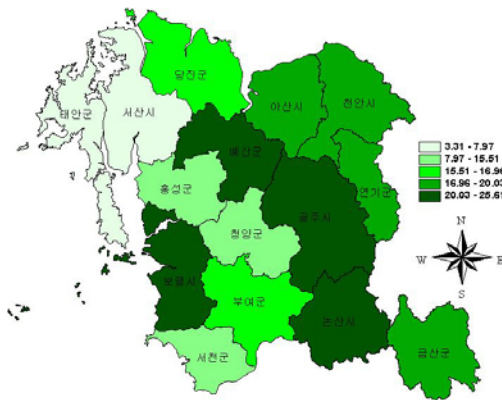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섬유, 의복, 가죽, 고무플라스틱 등 대도시 지역의 집적성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남 전체적으로 약 18.4%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시군에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예산군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주시와 보령, 논산시의 경우는 지역산업의 10%이상을 섬유제품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와 예산군은 고무플라스틱 등의 가공용제품의 중간재에 해당하는 업종이 발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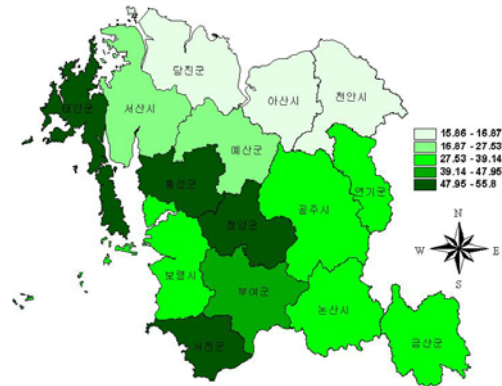
원자재입지형 산업은 산업분류상 음식료품, 목재, 펄프,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포함된다. 충남은 전체적으로 음식료품산업이 전국에 비해 많은 편으로 산업특성별 비중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청양군과 서천군의 경우는 지역산업의 1/3이상이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소재형 산업은 석유정제품 및 화학제품 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대부분 임해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주로 발달하는 산업이다. 본 연구에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업역시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 연관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관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남은 서산지역의 대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당진, 서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예산군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지역으로는 중소규모의 화합물제조업이 소재한 부여군과 청양군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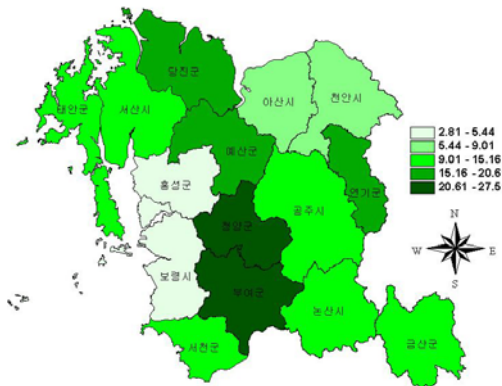
가공조립형 산업은 현재 충남에 가장 많은 산업적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공조립형 산업은 조립금속, 기계, 영상, 자동차 등으로 일정지역에 집적성향이 강해 지리적으로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산업이 집적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는 산업적 비중이 절반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는 기계장비, 전자부품 영상기기 등에 높은 산업적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아산시와 서산시의 경우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많은 산업적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당진군은 조립금속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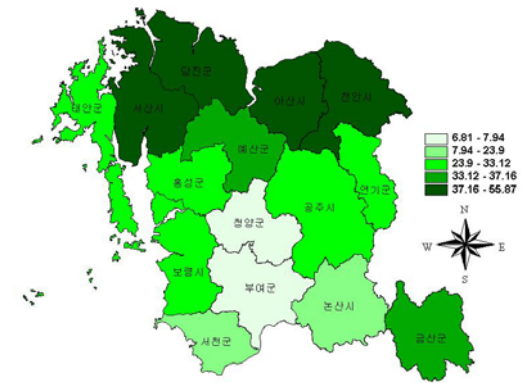
<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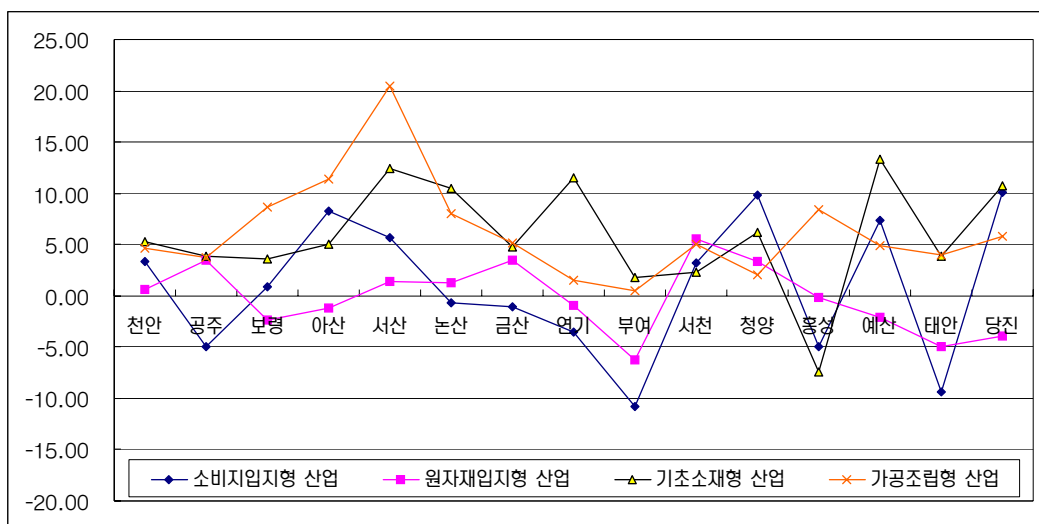
[그림4-10]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지역별 점유율

〈표4-6〉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지역별 점유율

	업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소비 지입 지형	섬유제품	4.0	14.1	14.6	2.7	2.6	10.8	5.9	5.0	9.3	5.1	-	0.8	2.1	-	2.5
	봉제의복	1.9	1.5	0.7	0.2	-	0.1	-	-	2.1	-	-	0.2	0.1	-	-
	가죽가방신발	-	-	-	0.3	-	-	0.3	0.6	-	-	-	-	-	-	0.3
	출판인쇄	0.9	0.8	1.2	0.9	1.6	0.9	0.2	2.9	0.3	0.7	0.7	1.1	0.1	3.3	0.6
	고무플라스틱	9.5	5.3	4.2	12.0	0.6	8.6	10.1	8.4	4.8	7.9	13.6	12.2	18.4	-	12.5
	가구및기타	2.1	0.9	3.2	4.0	3.1	5.2	3.0	1.8	-	0.6	-	1.2	1.9	-	1.0
	소계	18.3	22.6	24.0	20.0	8.0	25.6	19.6	18.6	16.6	14.4	14.3	15.6	22.8	3.3	17.0
원자 재입 지형	음식료품	10.3	17.3	24.9	8.1	16.3	30.3	23.1	14.4	27.9	35.0	43.5	26.7	11.6	41.2	6.7
	목재나무	0.3	1.3	-	0.8	0.3	1.1	0.7	0.9	1.7	2.0	0.5	0.2	1.2	-	0.5
	펄프종이	3.1	3.0	1.8	2.4	0.1	1.6	4.5	5.5	1.5	7.4	0.6	1.6	1.9	-	0.1
	비금속광물	3.2	9.8	12.5	4.5	10.9	5.5	3.6	10.5	16.7	7.8	11.2	25.9	7.1	14.0	8.7
	소계	16.9	31.4	39.1	15.9	27.5	38.5	31.9	31.3	47.9	52.3	55.8	54.4	21.9	55.1	16.0
기초 소재 지형	코크스석유	0.0	-	-	0.3	0.3	-	-	0.2	-	-	-	-	-	-	0.1
	화합물	6.2	10.7	1.8	5.5	12.7	10.1	7.3	13.2	22.7	8.9	23.1	2.0	10.7	12.9	5.9
	제1차금속	2.4	2.0	3.4	2.9	-	1.6	1.9	2.6	4.4	6.3	-	-	9.4	-	12.4
	재생용기공원료	0.3	0.7	0.3	0.2	0.4	0.3	2.2	1.0	0.3	-	-	0.8	0.5	-	0.6
	소계	9.0	13.4	5.4	8.9	13.4	12.0	11.4	16.9	27.5	15.2	23.1	2.8	20.6	12.9	19.1
가공 조립 지형	조립금속	7.4	5.2	9.7	9.6	9.0	7.2	4.6	4.3	2.9	4.6	4.2	2.5	5.0	6.3	14.2
	기타기계장비	15.9	7.5	3.4	11.4	1.1	2.0	14.8	5.4	2.6	5.5	2.6	1.6	4.7	2.9	8.1
	사무용기기	0.4	-	-	1.3	-	-	-	0.5	-	-	-	9.9	-	-	-
	기타전기기기	9.8	0.6	-	3.9	0.1	3.7	3.2	8.7	0.8	-	-	0.3	10.4	-	4.4
	전자부품영상	10.1	0.2	-	7.0	-	5.4	0.4	4.7	-	-	-	1.7	-	-	0.6
	의료정밀광학	2.9	13.5	3.4	0.7	0.6	0.9	6.5	1.0	1.6	0.5	-	0.3	-	12.9	1.6
	자동차트레일러	8.9	5.5	1.7	21.4	40.2	3.0	6.9	8.6	-	3.9	-	10.4	14.5	-	17.8
	기타운송장비	0.4	-	13.3	-	-	1.7	0.8	-	-	3.8	-	0.5	-	6.6	1.2
	소계	55.9	32.6	31.5	55.3	51.1	23.9	37.2	33.1	7.9	18.2	6.8	27.3	34.7	28.7	47.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지역의 산업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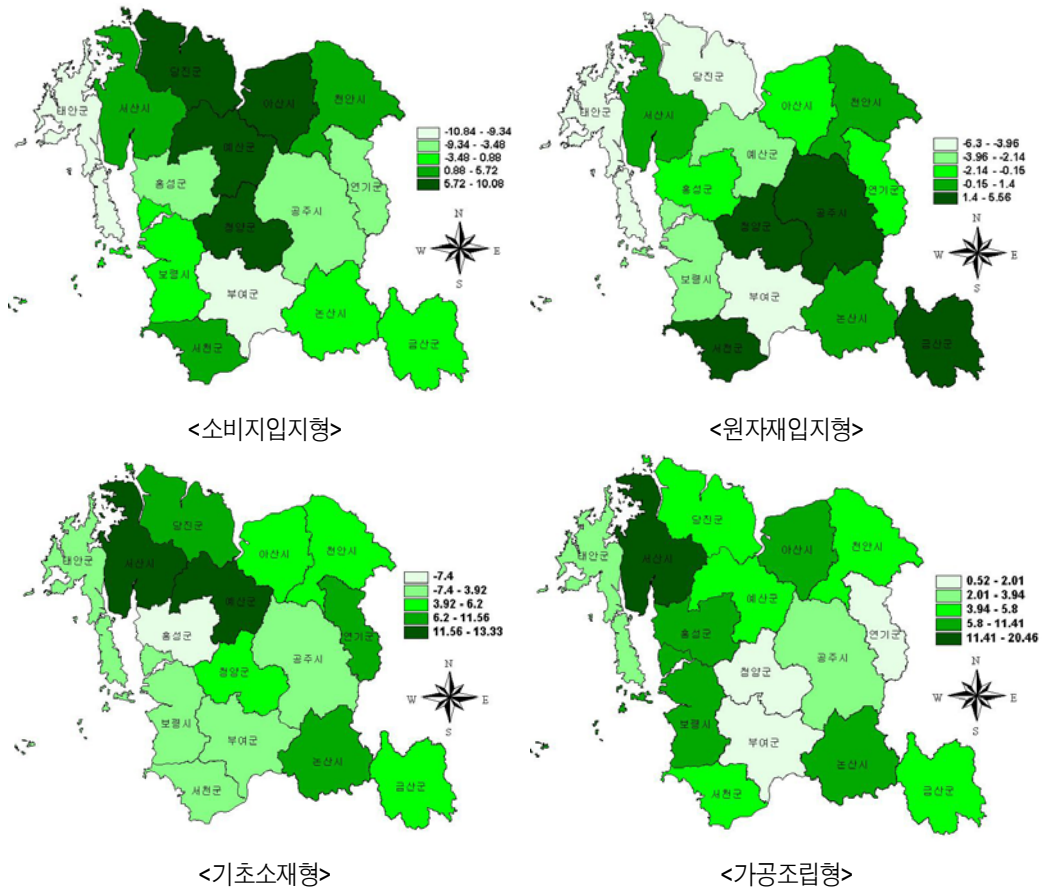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산업특성별 변화추이를 보면 충남전체적으로 기초소재형산업과 가공조립형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반면 소비지입지형산업과 원자재입지형산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1] 중소기업의 산업특성별/성장을 변화(1995-2005)

먼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공조립형산업의 경우는 전 시·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산시가 20.46%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는 가공조립형 산업에 있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연평균 33%에 가까운 비약적 증가로 가공조립형 산업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가공조립형 산업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보령시의 경우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공조립형 산업에 있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군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산업이 집적된 북부권지역 주변지역과 서해안 지역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2] 중소기업의 지역별/산업특성별/성장률 변화(1995-2005)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는 서산시, 예산군, 연기군, 논산시가 최근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군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기초소재형 산업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당진군, 청양군, 아산시, 예산군 등 북부권 주변지역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진군은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청양군과 아산시 역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비지입지형 업종 중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은 최종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제품에 있어서의 중간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천안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시군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원자재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산업화가 발달된 천안, 아산 지역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천, 공주, 금산, 청양 등 상대적으로 저 발달된 지역에서 다소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는 전 시·군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서천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연평균 27.2%의 성장을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주시의 경우는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고, 금산군과 청양군은 음식료품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저발달된 시군의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 주변지역의 공주시와 청양군, 금산군은 음식료품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제지업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성별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산업증가는 현 산업이 집적된 천안아산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정한 산업특성적 경로를 따라 확대되고 있다. 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는 서북부권과 서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는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산업특성별 비중변화 및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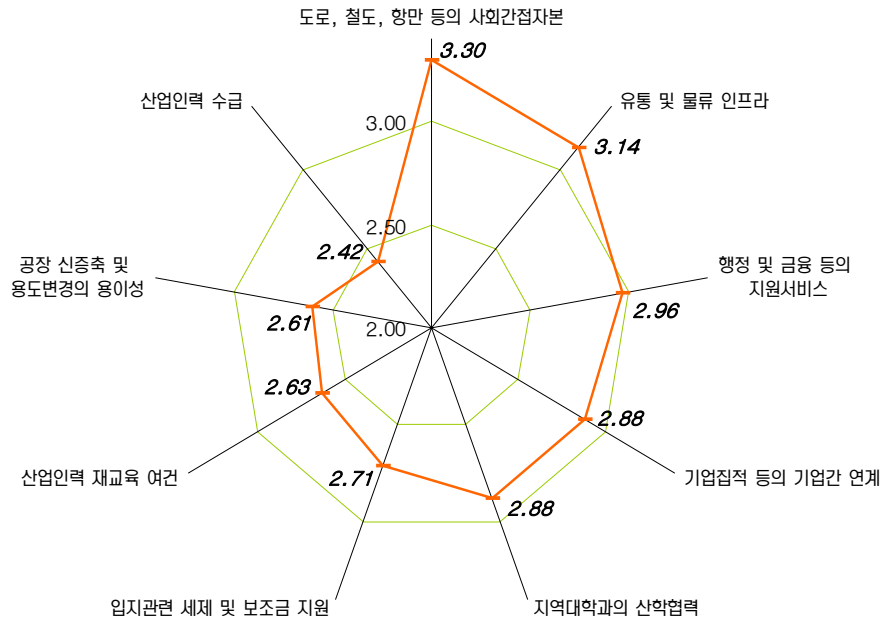
구분	산업비중 변화				연평균 증가율			
	소비지 입지형	원자재 입지형	기초 소재형	가공 조립형	소비지 입지형	원자재 입지형	기초 소재형	가공 조립형
천안시	-2.71	-25.88	17.77	9.92	3.35	0.58	5.35	4.62
공주시	-45.12	29.46	34.55	32.57	-4.99	3.52	3.92	3.77
보령시	-2.50	-29.90	26.60	105.64	0.88	-2.40	3.54	8.69
아산시	13.50	-54.85	-15.97	50.61	8.30	-1.24	5.09	11.41
서산시	-29.19	-53.35	31.52	161.27	5.72	1.40	12.47	20.46
논산시	-28.31	-12.84	109.19	66.14	-0.73	1.23	10.49	7.98
금산군	-33.47	4.02	18.16	22.63	-1.05	3.48	4.80	5.19
연기군	-33.14	-13.41	184.38	10.30	-3.48	-0.95	11.56	1.47
부여군	-44.51	-8.84	109.02	84.14	-10.84	-6.30	1.81	0.52
서천군	-12.44	10.13	-19.35	5.01	3.17	5.56	2.32	5.06
청양군	64.41	-11.29	17.20	-21.68	9.86	3.28	6.20	2.01
홍성군	-40.20	-2.15	-53.96	121.56	-4.95	-0.15	-7.40	8.35
예산군	33.63	-47.12	129.47	6.49	7.36	-2.14	13.33	4.95
태안군	-51.61	-22.57	88.19	89.91	-9.34	-4.98	3.85	3.94
당진군	68.95	-56.82	79.45	13.61	10.08	-3.96	10.74	5.80

3. 충남 중소기업체의 지역 입지요인

1) 충남 중소기업체의 입지환경요인

1절과 2절에서는 현재 기업이 어떠한 분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충남의 기업입지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절은 2007년 3월 실시된 기업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는 충남소재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층화랜덤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지역별, 업종별, 업체수에 대해 층화(Stratification)를 비례배분(Proportional Allocation)하여 단순임의추출(Simple Random Sampling)하였다. 설문조사는 1,5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율은 19.5%로 296부가 회신되었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pm 5.7\%$ 포인트이다. 조사표는 총 9개의 입지환경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9개의 기업입지환경요인가운데 충남소재 기업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와 물류 유통 인프라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인력수급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에 있어 가장 나쁘게 나타난 부분은 산업인력수급의 문제로 이러한 산업인력 수급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차원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충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인력 수급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으며,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업특성상 중소기업이 많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지방의 제조업체차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의 신증축 등의 각종 규제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좋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환경규제와 건축허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그림4-13] 기업입지환경요인

앞서 분류된 산업특성별로 살펴보면 설문응답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원자재입지형 산업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가공조립형산업이 가공조립형산업 29.4%, 소비지입지형 산업이 15.9%, 기초소재형 산업 13.6% 순으로 나타났다.

<표4-9> 산업별 응답구성비(2005년)

구분	소비지입지형 산업	원자재입지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
설문응답	47	122	40	87
구성비	15.9	41.1	13.6	29.4
충남기업현황	20.7	31.1	10.3	37.9

자료 : 조사표의 재작성.

〈표4-10〉 기업입지환경요인

입지요인	소비지입지형 산업	원자재입지형 산업	기초소재형 산업	가공조립형 산업	평균
도로, 철도,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	3.45	3.13	3.50	3.35	3.30
기업집적 등의 기업연계	3.05	2.79	2.85	2.94	2.88
산업인력 수급	2.27	2.51	2.44	2.36	2.42
산업인력 재교육	2.70	2.60	2.55	2.67	2.63
대학과의 연계	2.89	2.89	2.78	2.89	2.88
입지세제등의 정책적 요인	2.59	2.76	2.79	2.66	2.71
용도변경등의 용이성	2.49	2.58	2.59	2.72	2.61
유통물류 인프라	3.17	3.02	3.45	3.14	3.14
행정금융재정서비스	2.91	2.91	2.95	3.07	2.96

자료 : 조사표의 재작성.

항목별 입지요인을 산업특성별로 구분해 분석할 경우 대부분의 입지요인에 있어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계획입지의 특성상 입지환경요인이 타 산업에 비해 입지요인이 높게 나타난 반면, 원자재입지형의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요인의 변동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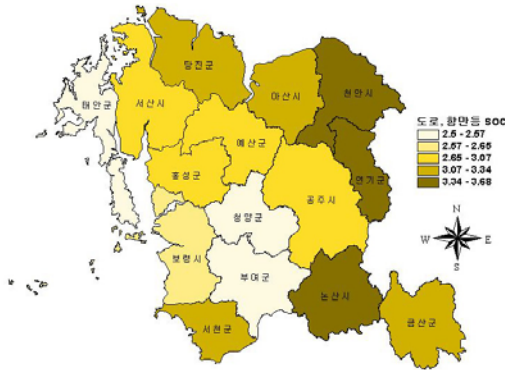
소비지입지형 산업에 있어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집적 등의 기업연계와 산업인력 재교육 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원자재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산업인력 수급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소재형산업의 경우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유통물류 인프라 등의 기초시설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가공조립형산업의 경우는 공장 확장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의 규제관련 사항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환경요인에 있어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천안, 연기, 아산 지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륙지역과 서해안 지역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입지요인 분석

입지환경요인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기업에 있어 원자재의 도입과 판매시장의 연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최근들어 시설의 모듈화 및 JIT생산방식 등의 도입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절에 분석하는 기업환경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천안, 연기, 논산 등 경부·호남고속도로 주변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청양과 부여, 태안은 SOC부분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지역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집적 등의 기업간 연계에 있어서는 신산업이 발달된 현재의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기업간의 상호연계하는 클러스터가 중시되고 있어,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집적 등의 기업간 연계는 전시·군이 대부분 고르게 나타났지만, 이중 천안·연기지역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지역 및 내륙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업집적 등의 기업간 연계에 있어서도 천안연기 경부축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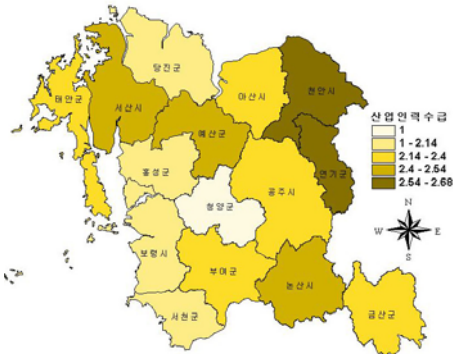
산업인력 수급은 기업의 입지환경요인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단순노동력 시장의 노동력 부족을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산업활동이 활발한 천안·연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산업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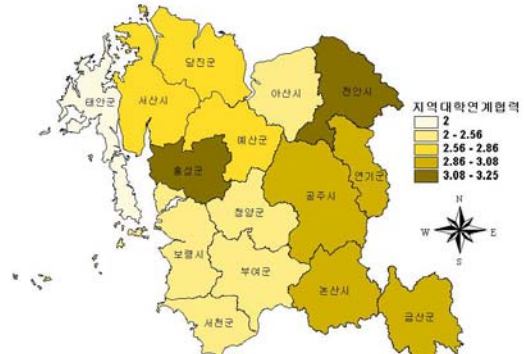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



<기업집적 등의 기업간 연계>



<산업인력 수급>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협력>

[그림4-14] 지역별 입지환경요인

지역의 산업인력 수급과 연계될 수 있는 지표중의 하나가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협력을 나타낼 수 있다. 지역대학과 기업은 산업인력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술의 공동개발, 이전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대학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천안을 비롯한 경부축에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대학과의 연계 및 협력 노력의 공간분포는 지역대학의 소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충남의 경우 지역대학의 40%가 천안아산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전체 대학의 70%가 경부축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항목들은 지역별로 공장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

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낮은 응답을 했고, 산업인력수급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산군과 서천군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및 금융 등의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기업체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업체가 많은 곳일 수록 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종합적 분석결과

본 연구는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지분포, 성장 등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중소기업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에서 차지하는 충남의 경제적 위치를 알아보고, 충남도내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산업적 비중과 경쟁력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적 산업분포와 산업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충남 중소기업에 대한 몇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남의 제조업은 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특화 및 경쟁력 우위 분석결과 충남지역은 제조업에 특화우위와 경쟁력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이며, 또한 입지상계수와 경쟁력지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제조업 경쟁우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충남소재 중소기업은 전국대비 경쟁력비교우위에 있어 대기업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은 충남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볼 경우 경쟁력 비교 우위 수준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높으며 업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충남지역전체 제조업에 비해 경쟁력 비교 우위 수준이 높은 상위그룹과 중위그룹에 속하는 업종의 수가 많았던 반면, 대기업의 경우엔 중위그룹 이상에 속했거나, 속하고 있는 업종이 적은 편이다. 200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제조업 22개업종 중 17개 업종에 경쟁력비교우위가 있으며, 경쟁력 비교우위수준이 높은 업종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반면 대기업은 9개업종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남 중소기업의 공간적분포에 있어서는 북부권의 천안아산 기존 집적지의 확대보다는 서산, 당진 등의 서북부지역, 예산, 홍성 등의 남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있어 충남 중소기업의 계획입지입주율은 28%에 불과하며 5인미만의 영세기업의 계획입지는 거의 없어, 중소기업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충남의 중소기업은 전체적으로 산업특성별로는 가공조립형 산업과 기초소재형산업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원자재입지형 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는 전 시·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홍성군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공조립형 산업에 있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시군들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산업이 집적된 북부권지역 주변지역과 서해안 지역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소재형 산업의 경우는 서산시, 예산군, 연기군, 논산시가 최근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시군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기초소재형 산업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당진군, 청양군, 아산시, 예산군 등 북부권 주변지역이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지입지형 산업에 있어서는 업종 중 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역적으로는 천안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시군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원자재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산업화가 발달된 천안, 아산 지역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천, 공주, 금산, 청양 등 상대적으로 저 발전된 지역에서 다소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는 전 시·군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서천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연평균 27.2%의 성장을 보이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입지형 산업의 경우는 대도시 주변지역의 공주시와 청양군, 금산군이 음·식료품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산업특성별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산업증가는 현 산업이 집적된 천안아산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일정한 산업특성적 경로

를 따라 확대되고 있다. 가공조립형산업의 경우는 서북부권과 서해안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초소재형산업의 경우는 서북부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소비지입지형산업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내륙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입지 분석에 있어서는 충남소재 기업들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SOC와 물류 유통 인프라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업인력수급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요인에 있어 가장 나쁘게 나타난 부분은 산업인력수급의 문제로 이러한 산업인력 수급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차원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충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산업인력 수급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을 가장 크게 보고 있으며,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기업특성상 중소기업이 많고, 임금수준이 열악한 지방의 제조업체차원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의 신증축 등의 각종 규제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좋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환경규제와 건축허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앞 절의 종합적인 분석결과 충남의 중소기업은 천안, 아산, 연기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전해왔으며, 이외지역은 상대적으로 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적 성장격차는 수도권 규제의 외생적 요인이 작용해 도내의 입지여건의 격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재는 주요 기업이나 산업활동의 입지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단계이며, 서산, 홍성, 예산 등의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은 상대적으로 성장산업중심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원자재입지형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중소기업의 입지분포와 산업특성별 분석에서 도출된 것처럼 충남은 4대전략산업중심의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공조립형산업은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열화가 일반적으로 동종 또는 이업종간의 협력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정책적 과제가 요구된다.

1. 입지정책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구분 필요

먼저, 중소기업 입지에 대한 관심의 확대 필요하다. 현재까지 충남의 기업 입지 공급 정책은 산업단지와 집단화 시설의 공급으로 대분된다. 이러한 각종 유형의 입지공급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이루어짐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현실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중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영세기업간의 입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기업의 입지에 관한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구분방식보다는 소기업과 중대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입지 공급 정책은 중기업과 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규모 이상 기업의 입지정책을 소기업에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거나 또는 소기업을 입지정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중소기업전용임대단지,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해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입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산업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

앞서 분석된 조립가공형 산업은 성장형 산업으로 충남 제조업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립가공형 산업의 경우는 수직적 또는 수평적 계열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 동종 또는 이업종간의 연계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수직적 또

는 수평적으로 연계가 있는 타 기업과의 입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역내 기업간 연계체계와 기업활동의 지역화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확대시켜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집적화와 외부기업 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내 기업간 생산 및 판매 연계체계의 구축은 제조업 입지여건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업간 연계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된 통합시스템의 형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중소기업 집단화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입지는 기존 산업단지 공급을 통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계획입지내 수용이 곤란하다고 이들을 곳곳에 산재된 개별공장에서 조업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별입지가 집단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반드시 문제점 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또 개별입지의 선정이 집단화 시설내 입지의 곤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개별입지의 규제는 오히려 불법공장의 양산 등과 같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의 중소기업 입지 정책은 중소기업집단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가공조립형 산업의 경우는 산업간 연계가 중시되는 측면이 있고, 일정부분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집단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장 입지의 집단화 및 이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임과 동시에 개별입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도구인 것이다.

4. 계획입지와 집단화 시설의 개발유형과 공급방식의 다양화

중소기업은 산업특성에 따라 입지상 요구조건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부지매각 중심의 입지공급 방식만으로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임대형 입지 공간의 개발, 고밀도 아파트형공장의 개발, 도시지향형 업종이면서 고층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업종의 기업들을 위한 도시내 미니 산업단지의 건설, 대도시 교외지역에 중소기업 전용단지의 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입지시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규모나 기술 경영능력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기업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입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을 공공부문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성격의 사업주체가 입지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200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민간기업이 공장용지를 실수요에 기초하여 개발시 인접한 공영개발 산업단지 공급가격의 2/3수준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5.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입지개발 필요

현재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정책이나 중소기업입지 정책은 공급자의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이는 기존 정책의 공급을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는 점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은 정책적 규제를 통하여 그 입지를 재편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소기업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입지적 요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개별입지 선호경향은 계획공단의 공급부족과 높은 분양가격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 주로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입지유통성 확보를 위해 개별입지의 허용범위를 원칙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자칫하면 무분별한 공장난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입지의 확대와 함께 이를 계획적 관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개별입지 공급확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정책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계획접근과 탄력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공업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역의 공업용도 변경가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훼손

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별입지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급적이면 필요한 기반시설의 우선 제공, 환경친화적 개별입지의 개발기준설정, 동종 유사업종의 집단유치 등을 통하여 개별입지를 집단화하여 외부경제효과는 물론 계획공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중소기업 입지개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기반이 극히 취약하고 기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들은 입지선택에 있어 판매처 및 구입처와의 일상적인 접근이 양호하며, 일시적 투자비가 저렴하고,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선호한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완결형의 전업공단의 조성보다는 도시내 입지를 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입지가 가능한 공업 및 준공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의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중소기업 입지의 문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시내 중소기업 입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율의 상향조정과 같은 토지이용 인센티브의 부여다. 이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는 사실은 도시내 중소기업 입지 개발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개발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시 기업의 역내 입지에 따른 일차적 수혜자는 지자체이다. 입지 개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지원에 있어서 역시 지자체의 역할이 현재에 비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영철외(2003),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 권영섭·김동주(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 김갑성 외,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pp25~47.
- 김병기 외(2001), 지역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기반 인프라 조사 및 구축방안 연구, 정부통신부.
- 김영수(2002), 지역산업의 생산성과 결정요인 분석: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서정대(2005). 제조업 지역·업종별 경쟁력 및 경영여건 비교·분석(II), 중소기업연구원.
- 이상훈·안재학(1996),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박영철·장철순·류승환(2002), 공업배치기본계획 : 산업입지의 수요전망 및 공급방안 부문, 산업연구원.
- 소진광(1998), 정보화에 따른 제조업 입지변화에 관한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3호 2호.
- 이환성·류승환(1997).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이윤·구자형(2005), 한국제조업의 집적과 지역화-추세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1909~2003, 한국경제연구원.
- 허범도(2004), 중소기업정책의 평가 및 새로운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경수(2006),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창섭(2000) 천안시 외곽지역 공업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병준(1998) 지역중소기업의 입지실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록(1997), 중소기업 공업입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여수수산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직(1995), 청원군 지역공업의 입지, 고용,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희(2006), 중소기업의 구조변화와 경제적 기여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인혁·오동욱(2005), “기업체 입지환경요인 수준과 업종, 입지유형, 생산체제 및 기업 규모간 관계분석; 충북지역 기업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 61호 pp225-256.
- 이현주·이승현(2004),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 이상옥, “지방중소기업의 공간구조계획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연구 제15집 pp135-180,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 한표환,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국토정보 175 pp16-23, 국토연구원.
- 김용웅, “중소기업 입지와 지역개발 전략”, 국토정보 164 pp8-20, 국토연구원.
- 김청성, “중소기업 공장입지 현황과 대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4 pp104-107, 한국기업정책연구소.
- 임양빈(1996), “서해안 신산업지대의 개발방향과 주요과제; 지방중소기업의 산업입지정책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김갑성외(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pp25~47.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연구원

공동연구 · 충남발전연구원 강영주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07-15 · 충남중소제조업의 입지실태와 특성 분석

글쓴이 · 백운성, 강영주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72(산업경제연구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6124-015-4 93300

<http://www.cdi.re.kr>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